

# 아주대의료원 소식

2009

통권 제176호 / 발행일: 2009. 9. 1. / 발행인 겸 편집인:朴起賢 / 발행처: 아주대학교의료원 홍보팀 / (443-72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 전화: 1688-6114

## · 목 차 ·

- 2 개원 15주년 기념사  
국제화 기준에 맞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터
- 3 선인재 칼럼  
고향 이야기
- 4 특집 1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대의료원  
으로 도약
- 10 포커스  
국내 최초 보험청구 서비스 도입
- 11 의학리포트  
악성흑색종과 「스피츠 모반」  
반드시 감별해야
- 12 질병 정보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 14 나의 연구 나의 테마  
마취 기전에 관한 연구
- 15 특집 2  
대학병원의 꽃, 집중치료실
- 32 잊을 수 없는 환자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K님
- 33 내가 꿈꾸는 의료인  
환자를 위한 첫걸음, 잊지 않겠습  
니다
- 34 장비 소개  
최첨단 혈관조영촬영 Allura XPER  
FD 20 장비 도입
- 36 통합의학센터 소식  
비타민 D 수치감소, 태양광이  
정답인가?
- 38 이의 선생  
십오야 밝은 아주까리 동백꽃이
- 39 AMC News
- 43 협력병원 탐방  
재활전문병원, 연세세미래병원
- 44 의료원발전 후원명세
- 46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 47 외래진료 시간표

##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았습니다.

1994년 개원이 엇그제 같은데 지난 15년 동안 변함없이 지지하고 격려해주신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아주대학교의료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32개의 진료과와 위암, 간암, 유방암센터 등 16개의 전문진료센터, 신경통증클리닉, 유전학 클리닉 등 수십여 개의 전문클리닉을 운영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여 의학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고 간호대학은 8년 연속 국가고시 100% 합격을 자랑하는 간호인재의 요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올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국제기준에 맞는 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JCI 인증을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쾌적하고 아늑한 진료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웰빙센터를 신축합니다. 국내를 대표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아주대의료원 모든 교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개원 15주년

## 국제화 기준에 맞는 의료원으로 거듭날 터

아주대학교의료원이 개원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5년의 괄목할만한 성장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의료기관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은 하루평균 외래환자 4천여 명과 입원환자 1천여 명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되었고, 의과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의 개원으로 명실상부한 의학전문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간호대학은 8년 연속 국가고시 전원합격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2010년부터 입학정원이 70명으로 늘어나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사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이 같은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발전은 교직원 모두의 열정과 노력, 또 저희 아주대학교의료원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지역주민의 성원이 맺은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아주대의료원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병원은 의료계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해 의료기관의 국제 인증인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 인증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국제기준 요건에 맞게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의료관광을 통해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겠다는 뜻을 넘어서 우리 교직원 모두가 JCI 인증을 준비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1월 착공예정인 웰빙센터는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9,407㎡(5,871평)의 규모로 웰빙과 관련된 진료과 및 클리닉, 건강증진센터, 산업의학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고급화된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병원은 또 올 해를 「친절한 병원 만들기 해」로 정하고 CS 추진팀을 발족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절에 대한 고객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부응해 교직원 모두가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고객을 대할 때 「고객만족」을 뛰어넘어 「고객감동」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이밖에도 병원은 올 해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 권역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국내 최초로 피부종양클리닉, 다리혈관클리닉을 개설하여 진료의 전문화에 매진하고 있으며, 로봇 전용 수술실 신설, 최첨단 방사선 치료 장비인 래피드야크 도입, SPECT/CT 및 PET/CT 2호기, 싸이클로트론의 도입은 환자에게 좀 더 빠르고 정밀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 베트남 병원 4곳과 진료·연수교육 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의 축적된 의료지식과 기술을 전수하고 있으며, 대우재단과 국내 다문화가족 및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저개발 국가와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개교 21년을 맞은 올해 의학전문대학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의과대학에 이어 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소수정예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리드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육기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올 해도 미국 스토니브룩대학, 플로리다대학, 일본 게이오대학, 이태리 다누치오대학과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썼고 의과대학 인정

평가에서 완전인증에 해당하는 5년 인증기간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세계중이엄학회 특별학술대회를 의과대학에서 주관하여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의과학을 세계의 석학들과 공유할 기회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4월에는 전국 기초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의과대학의 위상을 더 높였습니다.

8년 연속 간호사 국가고시 전원합격을 자랑하는 간호대학은 올해부터 입학정원이 40명에서 70명으로 증원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인성을 겸비한 간호사 양성에 주력할 것입니다. 해외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는 물론이고 캠퍼스의 라이프대학 학생들이 우리 간호대학에서 교육받는 등 국제적 명성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연구역량 역시 한층 배가되었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의 SCI논문 344편 발표, 한국전기연구원과의 상호협력체결, 보건복지가족부 골관절염센터 특화치료센터 선정,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지정과제 선정, 뇌과학 원천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등, 개원 시부터 축적된 우리의 연구역량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내리라 믿습니다.

세계 휴대폰 사용인구 5명 중 1명이 우리 기업에서 만든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IT제품뿐만 아니라 의료부문도 이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JCI 인증과 웰빙센터 신축, 또 광고신도시 의료허브에서의 우리 의료원의 역할 등을 통해 우리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의료원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과 비용 측면에서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대학교의료원 전 교직원의 국제적인 마인드와 눈높이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국제적인 표준은 국내에서의 경쟁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을 깨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경영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노사화합과 전 교직원의 진취적인 열정과 노력이 있을 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을 때 우리 의료원이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있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교직원과 저희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기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 고향 이야기

아침저녁으로 제법 찬바람이 분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짧지만 강렬했던 무더위를 뒤로 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 무슨 주제를 말 할까 고민하다, 이 가을에 가 볼만한 나의 고향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내 고향은 내장산으로 유명한 전라북도 정읍시에 속해 있는 조그만 시골마을, 약간 촌스런 이름이지만 칠보라는 곳이다. 시골학교 교장선생님이셨던 아버님 덕에 이런 멋진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지금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산 안에 내재된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내장산은 가을이면 온통 붉은 빛이다. 호남의 금강이라 불리는데 가을만이 아니라 봄에는 철쭉과 벚꽃, 여름에는 울창한 산림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은 눈이 많은 지역 특성과 함께 멋진 설경을 연출한다.

내장산 단풍과 함께 또 하나의 자랑은 정읍사이다. 「달님이시어 높이 오르셔서 멀리까지 비취주십시오... 험한 데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내 님이 가시는 데 날 저물까 두렵습니다」 행상하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달님에게 길을 밝혀 남편의 무사함을 비는 여인의 애뜻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유일하게 내려오는 백제 시대의 작품이며 한글로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가요로 국문학적인 의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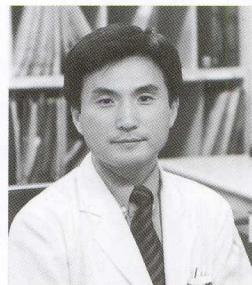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우리 고향에 국한된 얘기 인 줄은 모르나, 어릴 적 많이 들었던 녹두장군 전봉준에 관한 애절한 노래이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장군을 기리는 글짓기대회도 열리는 등 적잖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동학농민운동은 고부군수 조병갑의 심한 수탈 등 사회 정치 비리에서 시작되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백성들의 재물을 해치지 말자. 충효를 다해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일본 오랑캐를 내쫓고 성도를 깨끗하게 하자」 등의 강령을 내걸고 봉기하였다. 정읍시 고부면 죽산 마을은 전봉준 등 농민지도자들이 고부봉기를 모의하고 사발통문(일반인에게 알리는 호소문이나 격문(檄文)을 쓰고 나서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게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돌려가며 적은 글)을 작성한 곳으로 마을 입구에는 그것을 기념하는 탑이 서 있다. 이평면의 만석보(저수지) 터와 지금은 고부초등학교가 된 옛 고부관아 터는 1894년 고부봉기와 관련된 현 장이며 인근에 전봉준 장군의 옛 집이 복원되어 있다.

정읍시에서 전주 방향으로 국도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태인면(내가 태어난 곳)이 위치하는데, 피향정이라는 곳이 있다. 고운 최치원이 군수로

일하며 이곳에 처음 정자와 연못을 만들고 풍류를 즐겼다. 태인에서 피향정을 돌아서 약 4Km 떨어진 곳에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보낸 칠보면 이라는 곳이 있다. 칠보, 태인 지역은 오랫동안 현과 군청이 위치한 옛 고을 터였으며, 조선조 초기에는 정극인(1401~1481)이 벼슬을 버리고 처가인 이곳으로 낙향해 향약을 제정 시행했다. 대원군의 서원철폐에도 살아남은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면암 최익현 선생 등 호남의 선비들이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의 의병운동을 전개하는 등 구한말의 의병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전라도의 많은 곳이 그렇지만 이 곳 역시 멋과 맛의 고장이다. 한 끼 식사는 멀지 않은 곳에 최근에 부쩍 유명해진 정읍(산외)고기를 추천한다. 고기 맛이 좋을 뿐 아니라 값도 싸다. 상인 들이 명품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을 만들고 서로 견제하며 한우만을 판매한다고 한다.

올 가을에는 내장산 단풍은 물론이지만, 자녀와 함께 전봉준 장군과 동학혁명, 정읍사공원, 향약, 서원 등을 공부하고 체험하는 역사 여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한다. 훌륭한 1박 2일의 여정이 될 것이라 믿는다.



김재근 학생부학장

# 세계가 인정하는 아주대의료원으로 도약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올해 개원 15주년을 맞았다. 지난 15년 간 대학교, 병원, 연구소는 미래 의학을 이끌 전문의료인과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간호사를 양성하고 환자중심의 의로서비스를 구현하며 의학연구발전의 선봉적 역할을 해왔다. 이제 그 힘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세계적 수준의 의료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아주대의료원이 거둔 성과를 중심으로 지난 15년을 돌아본다.

## 웰빙센터 건립, JCI 인증준비, 친절로 병원 경쟁력 제고

지난 해 가장 고무적인 일은 웰빙센터 건립준비를 마치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아주대병원이 의료시장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여 국제표준인 국제의료기관평가(JCI: 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의 인증 준비를 시작했다는 것,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JCI 인증조건이 1300개 항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아할 정도로 까다롭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료기관인 아주대병원이 국제기준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 세계적 의료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는 11월 기공식을 앞두고 있는 웰빙센터는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5,871평 규모로서 검진센터, 암센터, 전문클리닉 등이 입주하여 고객에게 좀 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아주대병원은 2009년을 친절한 병원 만들기의 해로 정하고 지난 4월 CS 추진팀을 발족하여 다양한 친절 캠페인, 고객응대 교육, 친절의 날 및 친절상 제정, 전화모니터링 등 활동을 펼치며 고객에 대해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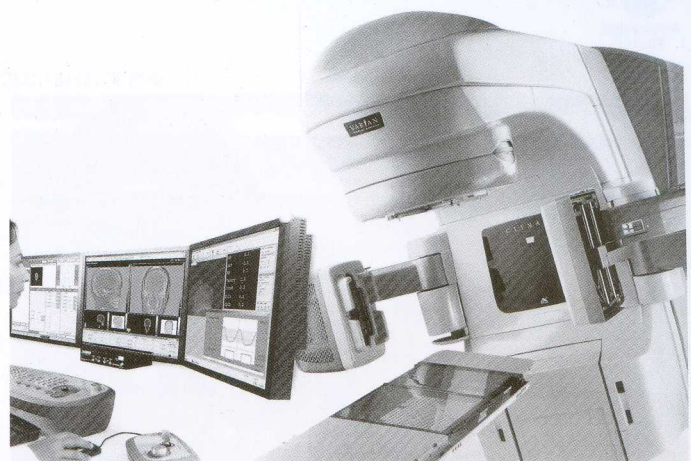
**진료 전문화, 의료장비 첨단화 가속**

지난 일년도 아주대병원에는 최첨단 장비도입과 진료의 전문화가 계속 됐다. 동양 최초로 도입한 암 치료기 래피드아크(RapidArc), 로봇수술기 다빈치(da Vinci Robotic Surgery), 새로운 방사성 의약품 생산의 핵심인 싸이클로트론, PET/CT 2호기, 혈관조영촬영 Allura XPER FD 20 등 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하여 환자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질병을 정확히 진단받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병원에서는 처음으로 피부과 피부에 달려 있는 기관에서 발생한 암과 종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피부종양클리닉을 열었고 다리혈관클리닉, 성장클리닉을 잇달아 개설하여 해당 질병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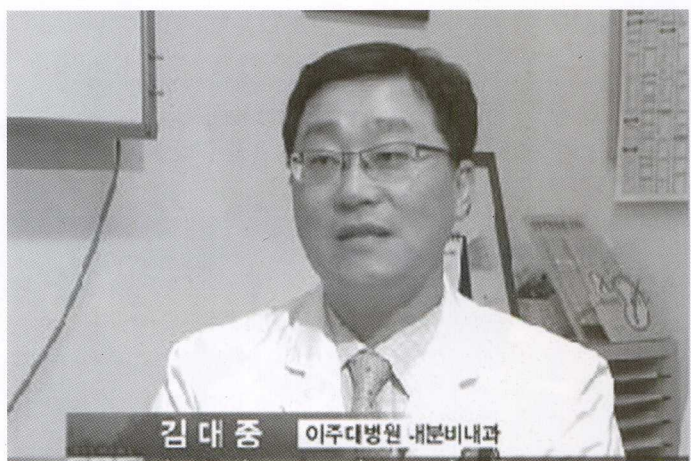
아주대병원은 문을 연 이후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의료장비의 첨단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현재 래피드 아크, 로봇수술기, 감마나이프, 싸이클로트론, PET CT, 64채널 CT, FULL PACS, 선형가속기, 영상뇌전도 시스템, 검사실 전자동화 시스템, 각종 레이저 치료기와 초음파장비를 비롯하여 첨단 심혈관조영장치, MRI, CT, SPECT, 선형가속기를 각각 3대씩 보유하고 있다.

**치료 효율을 높이는 임상성과 많아져**

임상적인 수확도 많았다. 신경외과 운수환 교수가 세계 최초로 두개골조기유합증 유아의 머리기형 수술 시간을 10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임으로써 수술의 안전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획기적인 수술방법을 개발해 학계의 반향을 일으켰고, 약리학교실 광병주 교수팀이 개발한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인 AAD-2004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연구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임상 1상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환자와 의학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피부과 김유찬 교수팀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 국인을 대상으로 스피츠모반을 연구해 한국인에서 생기는 스피츠모반이 크기와 색소의 정도에서 악성흑색종과 매우 유사하여 감별에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했고, 영상의학과와 배재익·원재환 교수팀은 절박성 하지허혈 환자에서 혈관성형술만으로 발목 절단 없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아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종양혈액내과 최진혁·이현우·정성현 교수팀은 진행된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서 ERCC1 단백질이 높게 발현하면 생존기간이 짧고 치료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데 이어, 5개월 만에 국소진행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를 위해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요법을 받는 환자에서 Bcl-2 단백질 발현 정도가 높으면 치료성적이 좋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



▲ 동양 최초로 도입된 방사선 치료장비 래피드아크(RapidArc).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 내분비대사내과 김대중 교수가 수면시간이 적으면 비만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을 받았다.

또 외과에서는 로봇수술을 시작한지 8개월이 못되는 짧은 기간에 로봇수술 100례를 달성했고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수술도 6백례를 돌파했다. 산부인과 불임클리닉팀이 14년 간 시행한 불임수술 5천 건에 대하여 세계 불임전문병원과 대등한 성과인 시험관 시술 임신성공률 30%의 성적을 거뒀음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는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가 세계당뇨병연맹-서태평양지구 회장에 당선됐고 성형외과 박명철 교수가 대한수부외과학회장, 소아청소년과 배기수 교수가 대한아노증학회장을 맡게 됐다. 또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박해심 교수가 아시아인에서 처음 영국 알레르기학회 학술잡지 부편집인이 됐고 피부과 이은소 교수가 국제학술잡지 「Archives of Dermatological Research」의 아태지역 외과 편집자, 정형외과 민병현 교수가 한국인에서 처음으로 미국 과학잡지 「Tissue Engineering」의 편집위원, 호흡기내과 박광주 교수가 IBC의 아시아지역 대표인 DDG에 임명



▲ 2009년 첫 입학생을 맞이 한 의학전문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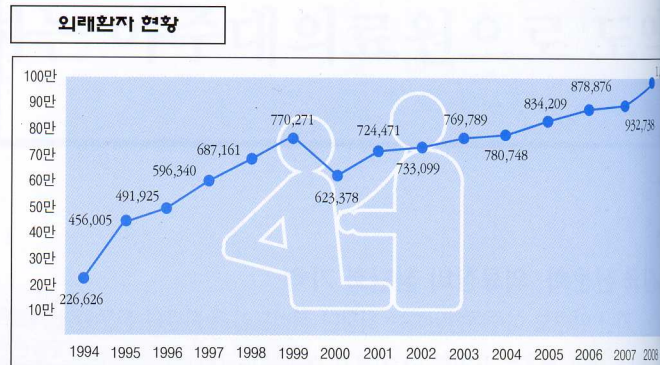


▲ 우수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은 연구의 효율을 배가 시킬 수 있었다.



▲ 아주대병원엔 보건산업발전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 3회 대한민국 보건산업 대상」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 그림으로 보는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실적 (단위 : 명)



되는 등 임상교수들의 대외활동이 활발하였다.

아주대병원엔 1994년 개원 이후 연달아 경기도 최초 간이식, 신장이식, 골수이식수술, 난치성 간질환 환자에서 고난이도 수술에 성공했고 로봇수술, 내시경을 이용한 암 절제술, 다양한 치료내시경 시술 등으로 상처의 최소 절개와 진단 및 치료 효과 극대화에 주력해 왔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교육기관으로 우뚝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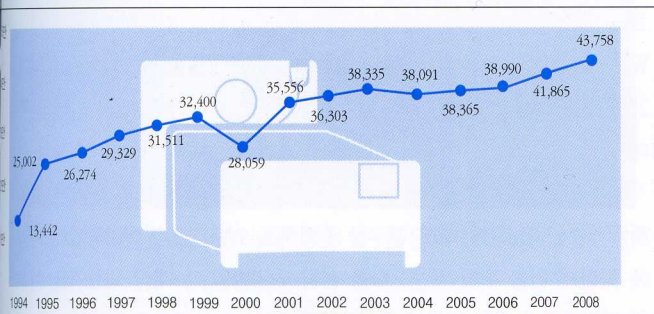
지난해 의과대학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일이 있었다. 지난 3월 의학전문대학원 개원으로 첫 신입생을 맞았다. 이제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병행 운영하게 된 의과대학은 명실상부한 의학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국제수준의 의사, 의학자 및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대학」을 지향하며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국제적 리더를 키워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도 미국의 스토니브룩대학과 플로리다대학, 일본의 게이오대학, 이태리의 다논치오대학과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의과대학 인정평가에서 완전 인증에 해당하는 「5년 인증 기간」을 획득하였고, 학술적으로도 전국기초의학 학술대회와 세계중어협 학회를 개최하여 국내외에 아주대 의대의 위상을 높였다. 또 연구중심 대학을 표방하는 의과대학은 지난해 SCI 논문발표 건수가 전년 대비 42%가 순증가하는 등 연구성과가 꾸준히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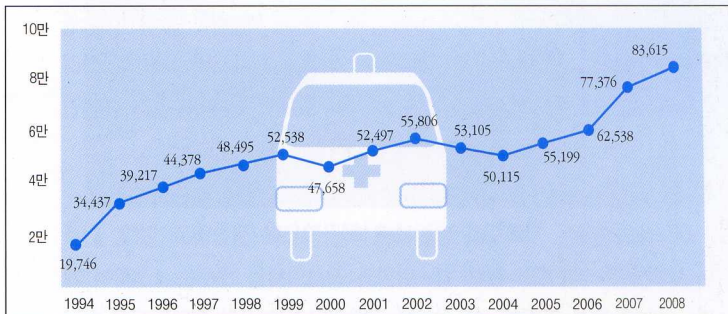
의과대학은 1988년 설립 당시 의대교육과정 6년 일관과정 변경, 인성 교육, 소수정예교육 등으로 의학교육계의 주목을 받으며 출발하여 짧은 기간에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5위 안에 드는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 연구 분야에도 꾸준히 투자하여 「규모는 작지만 연구 역량이 아주 뛰어난 대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글로벌 리더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해외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국제적 감각을 배우고 더 넓은 세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어 학생들의 호응이 크다.

지난 20년의 노력으로 오늘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은 전국 의과대학

입원환자 현황



응급실 내원환자 현황



중 신입생 선발고사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고 전국 3위의 연구역량을 지닌 의과대학으로 성장했다.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한국의 보건의료를 책임질 능력과 인격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고, 나아가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리더가 되도록 교육함으로써 국내를 물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꿈에 한발 한발 다가서고 있다.

주 교수팀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인 「AAD-2004」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에서 탁월한 약효와 안정성을 확인받은 데 이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연구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임상 1상 연구에 돌입하는 등 축적된 연구능력이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 규모의 증가와 함께 내실 다진 간호대학

간호대학은 2009학년도 정원을 40명에서 70명으로 30명 증원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8년 연속 전원 합격의 실력을 과시했고, 2008년 간호사-학사학위 특별편입특별과정(RN-BSN) 교육 인증평가에서 교육 5년 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 간호대학이 국제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현재 캄보디아와 베트남 학생들이 우리 간호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주대의료원은 개원 초부터 연구에 큰 비중을 두어 「의과학연구소」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하고 뇌질환연구센터를 시작으로 국책 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센터들을 연달아 개설했다. 연구센터가 안정화, 대형화되면서 상호 관련성 높은 연구들은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이주의대가 BK21(두뇌한국21) 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의과대학 연구분야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하였으며 대형 국책과제를 수주하고 연구비 수혜실적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좋은 결과를 얻었다. 현재 의료원은 총 19개의 연구소 및 연구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들 연구소 및 연구센터는 의료원의 지원과 그동안 축적한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앞으로 더욱 괄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올리며 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은 1998년 간호학부로 출발해 2006년 단과대학으로 승격했으며, 경기도 최초의 간호대학으로서 국가고시 수석합격자를 배출하고 연속 100% 국가고시 합격을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간호인재의 요람으로 자리를 잡았다. 간호대학은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교육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유수기관 및 저개발국과의 교육을 통한 리더십 함양, 특화된 실습교육, 돈독한 인관계를 만들어가는 멘토-멘티제도, 전문간호인력 배출 등의 장점을 살려 실력과 인성을 겸비하고 세계화를 추구하는 간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 고객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애써

이주대의료원은 지난 한 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새로 시작한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동참, KT&G 복지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사업 시작,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에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재활치료 지원, 수원시 치매조거검진사업 동참을 비롯하여 다문화 가족과 중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봉사, Happy Suwon 건강페스티벌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당뇨병, 루푸스, 골다공증, 관절염, 유방암, 전립선, 남성갱년기, 갑상선, 성조숙증, 비만, 고혈압, 요실금, 묘성증후군 등 질병별 건강강좌와 암환자를 위한 걷기대회 등을 열고 골밀도 검사, 유방암 검진, 평형기능검사 등을 펼쳤다. 웃음치료, 국선도, 명상 등 다양한 대체의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통합의학센터가 「행복한 노후」 심포지엄을 열어 건강장수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신경과가 토요일 진료를 개시했고 일반

### 국내외에서 연구능력 인정

연구분야에서도 지난 한해 민병현 교수팀이 복지부의 골관절염 특화치료센터에,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가 보건복지가족부 지정과제에, 김병곤 교수가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고, 노인보건연구센터가 세계노년학·노인의학협회(IAGG) 협력센터에 지정됐으며, 광병

안내기능에 진료상담 기능을 통합해 고객안내센터를 열었으며 외래환자의 전담입원예약창구를 개설하는 등 의료원은 좀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와 같은 아주대병원의 노력은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아 올해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아주대의료원은 지역사회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현재 아주대병원은 382개의 협력 병·의원과 진료의뢰를 해주는 4,300여 개 병·의원과 함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협력하고 있다. 개원 초 오산, 평택 미 공군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데 이어 2003년 용산 미 육군 121병원과 협력관계를 맺었고, 경기도와 24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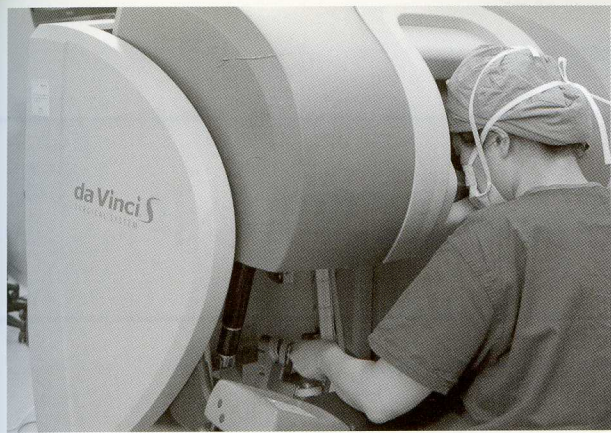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의 24시간 진료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수원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WHO 안전도시 사업에 동참하고 있으며, 2002 FIFA 월드컵대회에 이어 2008 FIFA 세계 청소년 월드컵 지정 병원으로 활약했다. 그 밖에 아주대병원은 캄보디아, 미얀마, 몽골 등 저개발국 의료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베트남, 중국 등의 병원들과 진료·연수교육 협약을 맺고 해당 국가 의료진에 대해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 기아대책에서 평양에 북한 주민을 위해 세운 「락랑 섬김 인민병원」에 대한 의료기술 전수와 병원운영에 관한 자문을 맡을 예정이다.

(정리: 신미정/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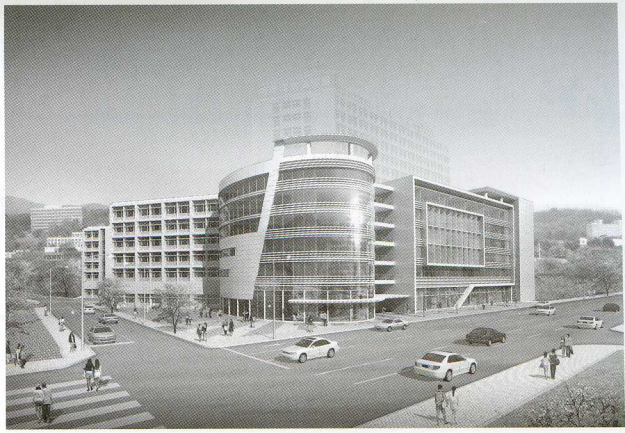
### ●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상성과

- |           |                                     |          |                                                  |
|-----------|-------------------------------------|----------|--------------------------------------------------|
| 1995. 3   | 개심술 성공                              | 1999. 10 | 난청유전자 발견                                         |
| 1995. 11  | 난자내 정자 미세주입술 시술 성공                  | 2000. 2  | COX-2 효소가 위암발생 초기단계부터 관여 증명                      |
| 1995. 3   | 국내 최초로 고서질환에 효소대체법 시행               | 2000. 2  | 휴대용 방광 내압측정기 개발                                  |
| 1995. 4~7 | 간이식, 신장이식, 자가골수 이식술, 동종골수이식술 성공     | 2000. 4  | 황장염 발생에 자기면역반응이 관여 증명                            |
| 1995. 8   | 첫 시험관 아기 탄생                         | 2000. 5  | 어지럼증환자를 위한 전정재활치료 개발                             |
| 1995. 8   | 국내 최초로 무릎 연골이식술 성공                  | 2000. 5  | 스타틴제의 골밀도 증가효과 규명                                |
| 1996. 1   | 난치성 간질환자에 고난도 수술요법(M.S.T) 성공        | 2000. 7  | 윌슨병 진단 유전자칩 개발                                   |
| 1996. 3   | 세계 최초로 유문부에 인공도관 삽입술 개발             | 2000. 10 | 교수/연구여건 국내 2위                                    |
| 1996. 4   | 뇌종양질환 방사선캡슐 삽입술 성공                  | 2000. 11 | 동양권 최초로 한국인 3차원 인체영상 제작 착수                       |
| 1996. 5   | 관절연골 재생술 시행                         | 2000. 11 | 환삼당굴 꽃가루 알레르기 면역치료제 개발                           |
| 1996. 7   | 국내 최초로 신경아세포종, 조혈모세포이식술로 치료 성공      | 2000. 11 | 라미부딘 치료 중 B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종의 변화 밝혀              |
| 1996. 7   | 세계최초로 중앙경계표식자를 이용한 뇌종양 제거술 개발       | 2001. 1  | 위암 환자의 보조항암치료와 TS 효소 고발현 상관 없어                   |
| 1996. 8   | 세계최초로 베타트브의 원인 기설중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기능성발견 | 2001. 5  | 보건복지부와 국립보건원로부터 「예방유전체 지역사회코호트 연구」 책임 연구 기관으로 선정 |
| 1997. 4   | 경기도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2차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       | 2001. 8  | 자궁내막증 환자의 불임원인으로 자궁내막폴립 규명                       |
| 1997. 7   | 혈청검사를 통한 위암진단법 개발                   | 2001. 8  | 암에 대해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수상돌기세포 제작 성공                    |
| 1997. 8   | 갱년기 질환 환자에게 여성 호르몬 대체 요법 실시         | 2001. 9  | 베체트병 단행본, 「Behcet's Disease」, 세계적 출판사 Springer발간 |
| 1997. 11  | 홀몸-166을 이용 골반내 재발 종양 치료 시행          | 2001. 9  | 자궁경부암, 항암화학방사선치료 효과 탁월 증명                        |
| 1997. 12  | 미국병리학회 정도관리인증 획득                    | 2001. 9  | 역류성식도염 발병 원인 위산보다 산화적 스트레스임을 규명                  |
| 1998. 2   | 신생아 난청 조기발견 체계 구축                   | 2001. 11 | 조혈모세포와 간엽모세포 동시 이식술 높은 치료효과 증명                   |
| 1998. 2   | 동양 최초로 SPECT/PET으로 양전자단층촬영 시행       | 2001. 12 | 보건복지부 「간 및 소화기질환 유전체 연구센터」로 지정                   |
| 1998. 3   | 전립선염의 원인을 배뇨장애에서 찾는 이론 제시           | 2002. 1  | 비후성 심근병증, 수술 않고 100% 알코올로 간단하게 치료                |
| 1998. 5   | 내시경을 이용한 비루관 폐쇄술 시술                 | 2002. 1  | 흡연 청소년 성장 늦고, 골 상태 안 좋은 것으로 확인                   |
| 1998. 5   | 한국인 당뇨병 환자 신경합병증 진단 위한 新문진표 작성      | 2002. 2  | 심한 통증환자, 「척추신경자극술」이 효과적임을 증명                     |
| 1998. 6   | 폐포단백증환자 전폐쇄적술 성공                    | 2002. 3  | 보건복지부 「경기남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
| 1998. 7   | 기미, 한관중에 레이저와 약물 병용 치료법 개발          | 2002. 3  | 고혈압 환자 흡연하면 폐암 걸릴 확률 더 높은 것으로 확인                 |
| 1998. 7   | 세계 최초 관상동맥 혈류속도에 따른 측정 평가 방법 개발     | 2002. 4  | 「직장 장간막 전절제술」로 배뇨 및 남성기능 장애 해결                   |
| 1998. 8   | 배뇨장애 새로운 이론 제시                      | 2002. 5  | 국내 신생아 천명당 1.6명이 난청임을 확인                         |
| 1998. 9   | 홀몸-166 이용한 관상동맥 재협착술 시행             | 2002. 5  | 저용량 아스피린과 스테로이드 병행치료로 임신률 높여                     |
| 1998. 10  | 개발된 자궁내막중재 경화술 개발                   | 2002. 6  | 기미 잘 안 낫는 이유 새롭게 규명                              |
| 1999. 2   | 국내 최초로 한국인 비만기준 발표                  | 2002. 10 | 국내 최초 생면역지체를 이용한 연골세포이식술 시술                      |
| 1999. 4   | 기미, 레이저 치료와 화학박피술 병행하는 새로운 치료법 개발   | 2002. 11 | 뇌동맥류 파열(뇌지주막하출혈) 발생 연령 40대로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          |
| 1999. 5   | 노인성 골질환 골고형제 주입술 실시                 | 2002. 12 | 퇴행성 뇌질환에 획기적인 치료물질인 「Neu2000」 개발                 |
| 1999. 6   | 슬관절을 살린 동종골 이식술 성공                  | 2003. 1  | 운동 고혈압, 심장질환 발병 가능성 높다는 것을 확인                    |
| 1999. 7   | 세계최초로 GAD단백질, 당뇨병 주요유발 인자임을 증명      | 2003. 2  | 류마티스 양성, 음성보다 적극적인 치료 필요 확인                      |
| 1999. 7   | 세계 최초로 수정란이 착상되는 인공자궁 초기기술 개발       | 2003. 4  | 소아 어지럼증, 다양한 원인과 양상이 있는 것을 확인                    |
| 1999. 7   | 국산 임플란트 공동연구 개발 및 시술                | 2003. 4  | 체평형검사와 자세검사가 만성 신경독성 영향평가에 유용함 증명                |
| 1999. 7   | 홀몸-166을 이용한 간암치료 시행                 | 2003. 5  | 자궁내 폴립, 자궁내막증 동반 확인                              |
| 1999. 10  | 변이단백질에 의한 새로운 발암기전 규명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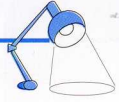


▲ 아주대병원의 로봇수술은 가동 8개월 만에 100례를 달성했다.



▲ 오는 11월 기공예정인 웰빙센터의 조감도.

- |          |                                                  |          |                                           |
|----------|--------------------------------------------------|----------|-------------------------------------------|
| 2003. 6  | 삼차신경통 알코올과피술 1000건 돌파                            | 2006. 8  | 조혈모세포이식 4백례 돌파                            |
| 2003. 6  | 임신성 당뇨병 경험한 여성, 분만 후 체중관리가 당뇨병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 | 2006. 8  | 국내 처음으로 크루존 증후군에서 '두개골-안면골 확장술' 성공        |
| 2003. 6  | 애원동물에 의한 일레르기질환 발생 가능성 증가 확인                     | 2006. 9  | 인공와우이식술 1백례 돌파                            |
| 2003. 7  | 심도자검사 환자 1만 명 돌파                                 | 2006. 10 | '락즈카테터를 이용한 갑상선경성형술' 새로운 치료법 시행           |
| 2003. 7  | 국내 처음으로 소장내시경 75건 시행                             | 2006. 10 | 항암 치료후 관절통 조기 치료 중요 확인                    |
| 2003. 7  | 미 육군 의무서령부와 진료협약 체결                              | 2006. 10 | 탈색모반의 새 임상적, 병리조직학적 특징 발견                 |
| 2003. 7  | 국내 최초로 고교 전교생에게 심폐소생술 수료증 수여                     | 2006. 11 | 이소시아네이트에 의한 직업성 천식의 새 진단법 개발              |
| 2003. 10 | 조혈모세포이식 3백례 돌파                                   | 2006. 11 | 국산 임플란트 4~5년 누적 생존율 97.9% 발표              |
| 2003. 11 | 당뇨병 환자 발기부전 유행률 높은 것으로 확인                        | 2006. 11 | '뇌졸중 치료제' 미국 임상시험 허가 획득                   |
| 2003. 12 | 크레아티닌 검사(혈액검사) 신장기능 이상의 정확한 검사 못돼                | 2006. 12 |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에 새 치료법 'EMDR' 시행          |
| 2004. 1  | 뇌동맥류수술 1천례 돌파                                    | 2007. 1  | 허리둘레 남자 87cm, 여자 83cm 넘으면 당뇨병, 골다공증 위험 확인 |
| 2004. 2  | 급성 심근경색 환자 스텐트 시술시 보호기구 사용하면 치료효과 3배 높아          | 2007. 1  | 만성 두드러기 환자 '아스피린 과민증' 위험 확인               |
| 2004. 5  |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의 유전자적 표지자, DPB1*0301 규명              | 2007. 2  | 삼차신경통에 '신경차단술' 효과 확인                      |
| 2005. 1  | 통증 없는 코내시경 검사 시행                                 | 2007. 2  | 사경, '비근육성 사경'의 빈도 수가 더 높음을 확인             |
| 2005. 1  | 치매 치료제의 신물질, Neu 2000 동물시험 성공                    | 2007. 3  | 한·중 세포은행 설립 협약 체결                         |
| 2005. 2  | 기관지내시경 7천례 돌파                                    | 2007. 3  | 소아만성 부비동염 수술방법, 성인과 다름을 확인                |
| 2005. 2  | 아주대학교병원, (주)메일유업과 산학협동으로 '모유 강화제' 개발             | 2007. 4  | 국내 최초 간이식 수술로 혈우병과 간암 동시 치료               |
| 2005. 2  | 세포사멸조절신약개발센터 개소                                  | 2007. 4  | 환절기 어린이 관절염 주의 확인                         |
| 2005. 2  | 자세성 두개골 기형, 한국형 연질형 교정모 개발                       | 2007. 4  | 피지샘 증식증, CO2 레이저 병행 치료 효과 확인              |
| 2005. 3  | 간경화, '간세포성장인자, 투여로 치료 가능 확인                      | 2007. 5  | 국내 최초 혈액형 다른 '간이식' 성공                     |
| 2005. 3  | 만성 신부전, 유전자 치료로 진행 억제 가능 확인                      | 2007. 5  | 심도자 검사 환자 2만 명 돌파                         |
| 2005. 3  | 단백질 Smad3, 위암 억제 효과 확인                           | 2007. 5  | 호르몬대체요법 5년 이내 유방암 발생 위험 없음을 확인            |
| 2005. 4  | 디지털 방식 골밀도 측정기 도입                                | 2007. 6  | 신장이식 2백명 돌파                               |
| 2005. 4  | 기흉, 통원치료 시행                                      | 2007. 6  | 경기도와 '신개념 도시형 비만 프로그램' 운영 실시              |
| 2005. 5  | 제3세대 인공발목관절 치환술 시행                               | 2007. 7  | 루푸스에서 '질병 활성도 표지자' 2개 확인                  |
| 2005. 5  | 보건복지부 지정 인천·경기·강원지역 지역임상시험센터로 선정                 | 2007. 8  | 국산 진행성 식도암의 예후인자, 'Bax 단백질' 처음 확인         |
| 2005. 6  | 기능성 복통, 신경차단술로 치료                                | 2007. 10 | 세계 최초로 난치성 신경질환 '다계통 위축증' 을 줄기세포로 치료      |
| 2005. 7  | 아주대학교병원, 한국혈우재단으로부터 혈우병 지정병원으로 선정                | 2007. 10 | 'ERCC1'이 소세포폐암 생존율을 낮추는 사실 확인             |
| 2005. 7  | 자궁경부암수술후 재발, '동시 항암화학방사선치료'로 예방 확인               | 2007. 10 | 흡연, 음주 과하면 대사증후군 걸릴 확률 2배 높다는 연구결과 발표     |
| 2005. 8  | 국내 위성형술 중 최고도 비만환자 시행                            | 2007. 12 | '어루러기'도 광역동치료에 효과 있음 확인                   |
| 2005. 10 | WHO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지원센터로 공인                     | 2008. 1  | 국산 뇌졸중 신약 미국 FDA 통과 눈 앞                   |
| 2005. 11 | HGF가 위암의 진행을 더욱 촉진한다는 사실 규명                      | 2008. 2  | 중증 난치성 아토피 피부염, 새 면역치료법으로 58% 호전          |
| 2005. 12 |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수술 2백례 돌파                             | 2008. 4  | 백반증 환자에 멜라닌색소와 멜라닌세포 있음 밝혀                |
| 2005. 12 | 우수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선정                          | 2008. 4  | 단백질 'Smad3', CEA 발현에 중요한 기전임을 밝혀          |
| 2006. 1  | 아주대병원-경기도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구축' 협약                 | 2008. 7  | 기흉클리닉 개설                                  |
| 2006. 2  | 경기·인천·강원지역 임상시험센터 개소식 개최                         | 2008. 8  | 비타민 D, 베타트병의 면역조절인자로 확인                   |
| 2006. 2  | 오목가슴 교정술 '너스술식 수술방법' 유용성 발표                      | 2008. 8  | 항염색질항체, 루푸스질병 활성도 표지자로 확인                 |
| 2006. 2  | 위·식도 접합 아래 중앙, 내시경만으로 제거                         | 2008. 9  | 경기도 최초 감마나이프 센터 개소                        |
| 2006. 3  | 최신형 디지털 유방촬영기 도입                                 | 2009. 2  | 비스세포 폐암에서 'ERCC1' 발현 높으면 예후 나쁜 사실 확인      |
| 2006. 3  | 복강경을 이용한 간절제술 11례 시행                             | 2009. 2  | 아주대병원 불임수술 5천 건 돌파                        |
| 2006. 4  | '세포변형 및 재생연구 사업단', 2단계 BK21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         | 2009. 5  | 복강경을 이용한 위암수술 6백례 돌파                      |
| 2006. 4  | 식도 천공, '일치복합술'의 유용성 발표                           | 2009. 6  | 세계 최초로 '유아 머리기형 수술 10시간으로 단축' 발표          |
| 2006. 6  | 경기 남부지역 처음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경부암 수술' 성공                | 2009. 7  | 혈관성 당뇨족 환자 혈관성형술만으로 발목 절단 안하고 회복 가능함 확인   |
| 2006. 6  | 기미원인, '표피' 보다 '진피'가 더 문제임을 규명                    | 2009. 7  | 비스세포 폐암에서 'Bcl-2' 발현 높으면 예후 좋은 사실 확인      |
| 2006. 7  | 64채널 CT 도입                                       | 2009. 7  | 아주대병원 로봇 수술 100례 달성                       |
| 2006. 7  | 신장종양 크기 4cm 이상이면 95.5%가 악성 종양 밝혀                 | 2009. 8  | 아시아에서 처음 한국인 대상 '스피츠 모반' 연구결과 발표          |
| 2006. 7  | 최첨단 검사실전자동화시스템 도입                                | 2009. 8  | 'AAD-2004' 임상시험 돌입                        |



## 국내 최초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아**주대학교병원은 7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 청구서비스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환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복잡하고 귀찮은 절차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으나,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으로 병원에서 간편하게 One-Stop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졌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전산 네트워크가 완벽히 구축되어 환자 본인 확인만으로 청구와 지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반하여 민간보험은 필요한 서류를 따로 구비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하며, 구비에서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환자가 일일이 찾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이 문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유실 및 훼손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의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해 심지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제는 각종 보험금청구 필요문서 발급 후, 병원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병원과 보험사를 잇는 Hot-line 서비스를 도입하여 7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험금 청구 서류가 보험사로 전달되며, 서비스 이용 후 서류 전달 여부를 바로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환자가 따로 보험사에 서류도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

아주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2시간 만에 보험금이 입금되었다며 큰 만족을 표했다. 입원환자의 경우 퇴원 이틀 전 미리 보험금청구 필요서류를 갖추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며,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병원 진료를 마친 후 곧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의료기관의 서비스 창구에서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획기적인 서비스인 「바로ONE 서비스」는 대한병원협회 산하기구인 KPPO(민간의료보험 협의체)가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였으며 전국에서 아주대학교병원이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현재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전국 100여 개 병원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1층 14번창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능한 병원 및 보험사는 <http://www.barooone.c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비스 관련 문의는 031-219-4342다. 서비스 이용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서비스 운영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지정한 (주)HNIP에서 맡고 있다.



# 악성흑색종과 「스피츠 모반」 반드시 감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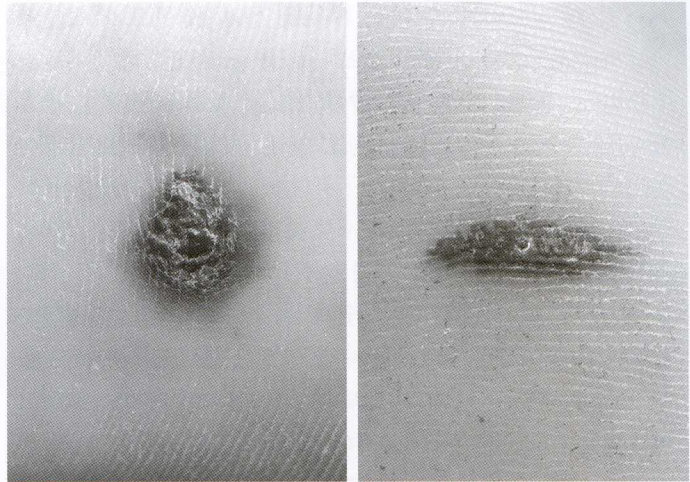
**한** 국인에서 생기는 스피츠모반이 크기와 색소의 정도에서 악성흑색종과 매우 유사하여 감별에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름이 생소한 「스피츠모반(Spitz nevus)」은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양성모반(점)이지만, 예후가 매우 안 좋은 「악성흑색종」과 조직학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반드시 감별해야 하는 질환이다. 조직학적 유사점 때문에 스피츠모반을 악성흑색종으로 잘못 진단하면 필요 이상으로 치료할 수 있고, 반면에 악성흑색종을 스피츠모반으로 잘못 진단하면 치료가 늦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서양에서는 스피츠모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스피츠모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왔으나 동양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주대학교병원 피부과 김유찬 교수팀(방동식, 조백기, 조광현, 최정철, 김문범, 김명화, 김시용, 김수남, 이증훈, 이석중, 신동훈, 신정현, 손숙자, 서기석, 윤태영, 박찬금 교수)이 1997년에서 2006년까지 지난 10년간 17개 대학병원에서 스피츠모반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국인의 스피츠모반」에 대해 연구한 결과,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스피츠모반의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인의 스피츠모반은 서양인에 비해 크기가 크고 피부 깊이에 있으며 색깔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년간 국내 17개 대학병원에서 스피츠모반으로 진단 받은 환자는 77명, 병변은 80개로 한국인에서는 악성흑색종 11개당 스피츠모반이 1개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양인에서 악성흑색종 2~4개당 1개꼴로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빈도다. 또 스피츠모반 환자의 75%가 스피츠모반이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인 스피츠모반의 특징은 서양인의 스피츠모반에 비해 크고 조직학적으로 많은 경우 진피 내에 존재(54%)하여 표피 아래에 있었으며, 색소가 있어(49%) 눈에 잘 띄었다. 이와 같이 서양인의 경우보다 크기가 크고 색소가 있는 한국인의 스피츠모반은 서양인에 비해 악성흑색종과 더 유사하게 보이므로 진단할 때 좀 더 주의해야 한다.



▲ 악성흑색종(좌측)과 스피츠 모반(우측)

김유찬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스피츠모반이 드물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한국인에서 발생하는 스피츠모반의 특성상 서양인에 비해 악성흑색종과 더 유사하므로 진단할 때 모반이 비대칭인지, 경계가 불규칙한지, 색조가 다양한지, 직경이 0.6 cm 이상인지를 관찰하고 그밖에 이미 있던 점의 모양·크기·색깔이 변했거나, 가려움증·통증이 생겼거나, 출혈·궤양·가피 등 표면상태의 변화가 보이거나 병변 주위에 작은 병변이 위성처럼 나타나면 악성흑색종을 의심해야 하며, 무엇보다 조직검사로 확진을 하므로 조직검사 소견의 정확한 관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논문은 세계적인 학술지인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gy 인터넷판에 게재됐다.



#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암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존재하는 기관으로 큰 밤톨만한 크기이고 방광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드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나이가 들에 따라 점점 그 순기능은 퇴색하는 대신 배뇨곤란, 세균성 감염, 암 등 여러 질환의 온상이 되어 간다.

## 남성의 주요 암증 증가율 가장 높아

전립선암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남성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며 미국의 경우 암에 의한 사망원인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40세 이하에서는 드물지만 50세 이후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70대에 가장 많고, 80% 이상이 65세 이후에 진단될 정도로 노령의 암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서구의 암이라 여겨지던 전립선암이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와 인구의 노령화로 우리나라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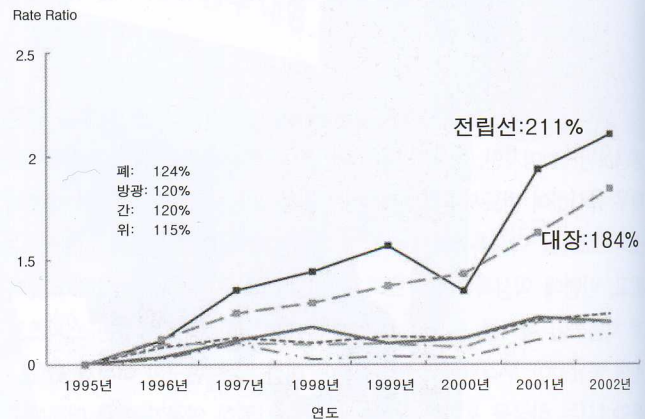
최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03년과 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 남성에서 발생한 암 중 전립선암이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에 이어 5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7년간 남성의 주요 암증 그 증가율이 21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전립선암에 의한 사망자수도 최근 10년간 3배나 증가하였다. 전립선암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자 2008년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전국의 유병율을 조사한 결과 55세 이상 남성 중 무려 3.2%가 이미 전립선암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전립선암은 비교적 순한 암에 속한다. 다른 암과 비교하면 그 성장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80세 이상 고령 환자의 경우 아무런 치료 없이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든 전립선암이 모두 순한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매우 빨리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인에서는 그 발생 빈도가 서양인에 비해 낮지만 악성도는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암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동물성 지방 섭취가 전립선암의 주요 원인

전립선암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인종, 가족력 등과 같은 선천적 요인과 식이 등의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동양인에 비해 서양인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특히 미국에서는 흑인이 백인에 비해 발생 위험이 더 높다. 환경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인데, 특히 동물성 지방의 섭취가 많을수록 전립선암의

주요 암의 발생증가율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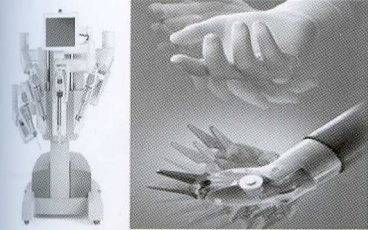
발생 위험이 높다. 반면 대두, 강낭콩, 완두콩과 같은 콩류나 건포도와 같은 마른 과일의 섭취는 전립선암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 배뇨곤란, 혈뇨, 혈정액증 등의 증상 보여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 더구나 몸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방암처럼 자가 검진도 불가능하다. 종양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면 배뇨곤란과 혈뇨, 혈정액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때로 전이된 경우 전이된 뼈에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전립선암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그 어떤 암보다도 오래 살 수 있다. 조기 진단은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 방문을 통한 한두 가지 예비 검사를 시작으로 쉽게 할 수 있다. 항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만져보는 직장수지검사서 전립선 표면에 단단한 혹이 만져지면 암을 의심하게 된다. 또한 전립선특이항원(PSA)이라는 피검사를 통해 암을 선별할 수 있는데, 통상 PSA가 4.0 이하이면 정상, 4.0 이상이면 비정상으로 본다. 직장수지검사나 PSA 중 한가지만이라도 비정상이면 전립선조직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확진하게 된다. 전립선조직검사는 항문으로 초음파기계를 넣어서 전립선을 정확히 조준하여 10~12군데를 조직검사용 바늘로 찔러 조직을 얻고 1주일 정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조직검사는 마취가 필요 없는 검사이지만 수일간 혈뇨나 혈변이 있을 수 있고 중한 전신감염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3일 입원하여 검사하는 것이 권장사항이다.

## 다빈치 로봇수술



명 호르몬 치료법으로 상당기간 동안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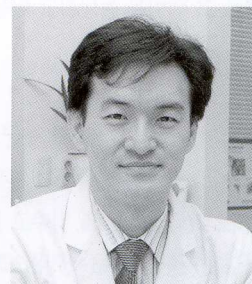
## 50세 이후엔 정기 검진으로 전립선암 예방해야

전립선암의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음식물이나 영양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암의 완전한 예방을 가져오지 않으며 과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류를 적게, 과일과 채소는 많이 섭취하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권장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립선암의 호발연령인 50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이나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 로봇수술로 통증과 후유증 크게 줄어

암으로 진단되면 병기를 결정하기 위해 MRI나 CT와 골주사 등의 검사를 한다. 검사 후 1기나 2기로 판명될 경우 전립선을 떼어내는 전립선절제술이 가장 권장되는 치료법이며 방사선치료도 가능하다. 병기 1이나 2일 경우 치료 방법에 관계없이 예후는 매우 좋아서 5년 내에 암이 재발할 가능성은 10% 안팎이다. 수술의 후유증으로는 요실금, 성기능장애 등이 있으며 방사선치료의 후유증으로는 방사선 직장염이나 방광염이 있다. 요실금은 대부분(90% 이상) 1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며 성기능장애 또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70%의 환자에서는 회복된다.

최근에는 다빈치라는 수술용 로봇을 이용한 전립선절제술이 국내외적으로 널리 보급되면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 새로운 수술법은 통증과 수혈이 일반 수술보다 적다는 복강경수술의 장점 이외에 로봇팔과 확대된 삼차원 영상을 이용하여 손떨림 없이 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수술할 수 있어 일반 수술법에 비해 사뭇 발전된 수술법이며 앞으로 전립선암 수술의 결과와 후유증 개선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아주대학교 교병원에서도 작년부턴 로봇 전립선절제술을 시행하기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병기 3인 경우 수술 후에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치료 결정을 해야 하며 방사선과 호르몬의 복합 치료법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 병기 4인 경우 다른 부위로 전이되어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는 불가능하며 남성호르몬을 차단하는 약제를 투여하는 일



김선일 교수 / 비뇨기과학교실



# 마취 기전에 관한 연구

**친**구들과 만나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 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참으로 삶의 활력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다 어쩌다 센치한 모드가 깊어진 만남에서는 휴~ 긴 한숨까지 섞어가며 「삶이란 뭘까? 나라는 건 뭐지? 의식이란 건 머야?」 이러한 질문들을 내어 놓기도 한다. 분리되어 있지 않는 삶 속에서 나라는 의식을 갖고 매 순간을 살아가기에 당연히 알아야 할 것 같은 앞선 질문에 우리는 서로 어깨를 으쓱하며 의아해 하기도 한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질문을 다루는 책들에 꽃혀 몇날 며칠을 책에 빠져 들기도 한다.

「마취」. 사람의 의식을 소실시켰다가 다시 깨어나게 도와주는 마취, 그것은 이제 우리 임상 의료 속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1846년에 에테르를 사용한 첫 마취를 시작으로 160여 년간 마취는 임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취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서의 일상은 마취제의 특성과 효과에 포커스를 맞추게 한다. 그러다 「마취의 기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여전히 명확히 답할 말이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지기도 하며, 그것은 특히 마취를 다루는 의사에겐 강한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그러한 호기심을 품고 연수를 간 곳이 샌프란시스코 주재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California San Francisco)에 있는 마취연구실험실(Anesthesia Research Laboratory)들 중 C. Spencer Yost 선생님이 운영하는 실험실이었다. 내가 관여하게 된 연구는 휘발성 마취제의 다른 작용 부위로서의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는 두 개의 P domain이 연속으로 있으며 4개의 transmembrane segments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포유류의 background K<sup>+</sup> channel군에 관한 것이다. 이들 중 한 가지 종류인 TRESK를 유전적 결함을 갖은 이종의(heterogenous) 쥐 네 마리가 연구의 시작이었다. 키우고 관찰하고 유전자를 분석하고, 성장 후엔 다양한 마취제로 실험을 하여 TRESK의 소실로 인해 드러나는 현상과 이전에 다른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그 의미를 논의하고 다음의 연구방향을 이끌어 내었다.

같은 장소에 여러 실험팀이 있던 그 곳에서 누군가 이전 조각이 넘는 퍼즐을 가져다 놓았던 기억이 난다. 실험 틈틈이 휴식시간에 사람들이 각자 재미와 호기심으로 한 조각을 맞추고 또 맞추고 하였다. 어느 날은 아무리 뒤져도 맞는 조각을 찾는 것이 아득하게만 느껴지지만 다음 날이면 마치 우연처럼 다른 한 조각을 맞추어 내고 기뻐하고 웃으며 휴식했던



▲ 연구실에서 Guo-Xi Xie 교수와 함께 한 채윤정 교수

기여. 누군가 맞춘 조각을 기반으로 다음 조각이 찾아지는 과정 속에 그 큰 그림은 서서히 그 본래의 그림의 자태를 드러내었다. 마침내 마지막 조각이 자신의 위치를 찾던 날 서로 얼싸 안고 어찌나 기뻐했던지...

내가 맞추지 못했던 부분을 맞추어 내던 동료에게 감사하고, 내가 맞춘 부분에 뿌듯함을 느끼던 순간이었다. 일 년간의 한 가지의 연구로 「마취 기전」이라는 큰 그림을 모두 설명해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연구는 그렇게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은 우리의 조각맞춤이 아닐까? 이 연구결과의 해석과 논의는 이전에 다양한 연구로 이루어진 맞춰진 조각을 토대로 가능하였고 또 다른 조각이 우리의 조각을 기반으로 맞추어 질 것이다. 「unknown」으로 알려진 마취의 기전에 대한 연구는 「막연함」이 아니라 그렇게 「앞」을 향해 끈기 있는 걸음을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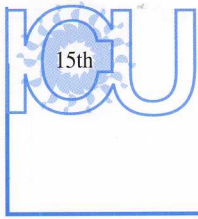
채윤정 교수 / 마취통증의학교실



# 대학병원의 꽃 || 집중치료실

## 목 차

- 16 최첨단 장비와 전문성으로 환자를 돌보는 아주대병원 집중치료실 | 18 내 인생과 함께한 집중치료실  
19 주연을 빛내는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터 | 20 젊은 날의 CCU | 21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보낸 4년  
22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 소개 | 25 믿음과 신뢰를 주는 손 | 26 사진으로 보는 집중치료실 24시  
28 첨단 의료기술의 집약- 최신 중환자 치료와 장비소개 | 30 집중치료실의 궁극한 점, 10문 10답



# 최첨단 장비와 전문성으로 환자를 돌보는 아주



**집**중치료실은 현대의학의 총화이며 대학병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7,80년대만 하더라도 장비와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중환자의 진료는 인력에 의존하였다. 의사의 열정과 노력, 환자의 경제력 부족이나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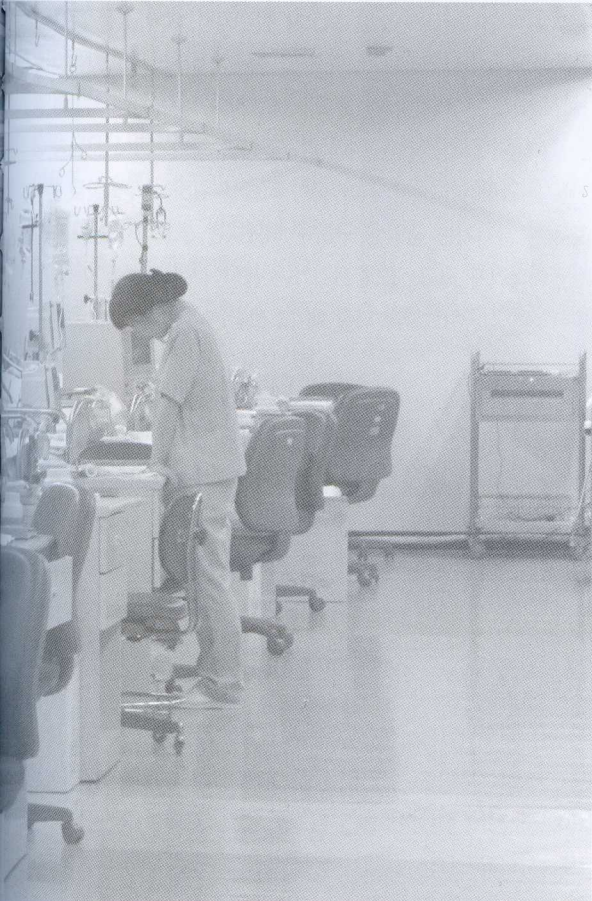
물론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산재하여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대학병원 집중치료실은 최신의 의학지식과 의약품, 인공지능의 최첨단 생명 보조장치와 BT, IT 융합기술이 환자의 생명정보를 감지, 경고하며 갖 태어난 500그램 전후의 위태한 생명에서부터 70~80대 노인의 중증질환은 물론 각종의 장기 이식 환자, 촌각을 다투는 심장 질환 환자, 외상환자 및 패혈증환자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의

료진의 수많은 땀방울과 밤샘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따라서 삶과 죽음의 희비가 엇갈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종합의술의 산실이라고 하겠다.

또한 집중치료실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결같이 해피엔딩으로만 그려지는 환자 및 보호자들의 왜곡된 막연한 기적에 대한 기대감과 엄연한 현실이 교차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선진국의 통계에서 보면 한 개인이 소비하는 의료비의 약 80~90% 정도가 환자의 마지막 1주일 정도의 집중치료를 소모된다고 하니 한편으론, 인간답게 죽을 권리와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의무가 충돌하여 현재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법도 하다.



## 병원 집중치료실



벌써 아주대학교병원이 개원한지 15주년이 되었다. 수원시와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우리 아주대학교병원도 많은 발전을 하였고 또한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도 개원 초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동안 많은 환자가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최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는 환자의 존엄사 문제 및 전직 대통령께서 폐렴으로 기계호흡기치료를 받는 등 집중치료실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과 중증 질환의 증가 추세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함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첨단 의료산업의 꽃으로 집중치료실이 부각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개인의 평생 진료비의 90%를 사망 전 1주 이내에 집중치료실에서 지출한다고 한다.

개원초기에는 내과계, 신경내과계, 신생아계, 심장혈관계,

외과계 집중치료실에 총 75개의 병상으로 집중치료실을 시작하였고 꾸준히 집중치료실을 확충하여 2006년 응급집중치료실 증축, 2007년 뇌졸중집중치료실 증축으로 7개의 분과별 집중치료실과 총 119개의 병상수를 가지는 국내 최고수준의 집중치료실로 발전하였다. 병원 총 1100여 병상의 10%가 넘는 많은 수의 중환자 병상을 갖추어 중환자 치료에 대한 아주대학교병원의 많은 애정과 관심이 돋보인다. 각각의 전문분야별 집중치료실에는 각 의학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의사 및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과 함께 각종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내과, 외과, 소아과 등 각 분야를 망라하여 다양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중환자를 위한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집중치료실의 필수장비인 기계호흡기에 관한 전문 교육을 위해 아주기계환기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간호부에서는 중환자간호 초, 중, 고급 교육과정 등을 개설하여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들 모두 전문화되고 좀더 나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website를 이용하여 각 환자별 질환 중증도의 체계적 파악을 위해 집중치료실 점수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병원은 모든 아픈 이들을 위해 존재하며 이들의 쾌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이다. 특히 집중치료실은 생사를 넘나드는 중환자와 함께하는 곳이다. 아주대학교병원 모든 집중치료실 직원들은 중환자와 이들의 가족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미 그 실력과 생존률을 인정받아 국,내외 적으로 많은 협약기관과의 교류에서 시설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아픈 이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황성철 교수 / 집중치료실 위원장

## 내 인생과 함께 한 집중치료실

내가 마취과 의사로서 집중치료실에서만 근무한지 어언 이십 년, 내 의사 생활의 반 이상을 보내고 나니 감회가 새롭다. 하루 중 집중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거의 12시간 정도로 24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니 결국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다고 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집중치료실에 관심을 갖은 것은 지금은 작고하신 서울대학교 김 광우 교수님의 영향이 크다. 그분의 호흡관리에 대한 강의에 매료되어 호흡기, 동맥혈가스분석기(1970년대는 직접 작동)에 흥미를 느끼면서 집중치료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내 의사생활에 전환기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영동 세브란스 집중치료실을 3개월 마다 한 달 간씩 순환 근무를 하면서 집중치료실에 관한 관심은 더욱 깊어갔다. 그러나 집중치료실에서 중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마취과 의사로서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많은 부분의 학문을 다시 공부하여야 했다.

내가 집중치료실에 있는 중환자들을 돌보면서 터득한 것은 아무리 중환자라도 의료진이 보살피준 만큼 환자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환자 관리에 좋은 결과를 위하여 숙달된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집중치료실은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다. 가까운 일본도 중환자 전문 의사가 24시간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며, 중환자실 간호사 한명 당 환자 2명 이하의 비율로 중환자실 내에는 충분한 의료인이 근무하며 환자를 돌본다. OECD 국가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중국도 중환자관리에 비중을 두고 유사한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중환자 전담의가 상주하면서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다섯 병원 정도인데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이 그 중의 하나이며, 어느 면에서 아주대학교병원 환자들은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개원 이후 외과계 집중치료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집중치료실의 인력도 부족하지만 시스템적으로도 개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나 개인 혼자 능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최근 정부의 외국환자 유치와 맞물려 여러 대학병원에서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국제의료기관 인증」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도 많으나, 우리가 인증준비를 하여 국제의료기관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병원의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은 향상되며 아울러 집중치료실의 문제점도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집중치료실에 근무하면서 얻은 또 하나의 큰 보람은 뇌사자의 주

치의로서의 역할이다. 뇌사자 발생 보고가 접수되면 내가 직접 장기 기증팀과 함께 뇌사자 발생 병원으로 가서 그 병원에서부터 뇌사자를 치료하여 이송하고 이송도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뇌사자를 최적의 상태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복잡한 여러 검사과정과 장기기증에 문제가 없다는 뇌사관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장기 적출을 위하여 수술실로 들어보낼 때 수많은 꺼져가는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흐뭇한 마음으로 내 피로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한 꺼져가는 생명이 새 장기를 이식받고 새로운 삶을 얻어 집중치료실을 나갈 때 그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이영주 교수 / 외과계 집중치료실 책임교수



# 주연을 빛내는 조연의 역할에 충실할 터

**학** 생 때 소아과학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소아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는 소아와 어른의 차이가 크기만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질병의 형태도 성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이다. 여기서 생각을 넓혀보면, 「신생아는 작은 소아가 아니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들이 병동에 있는 다른 소아들의 치료와 전혀 다른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박문성 교수가 전공의와 함께 NICU 회진을 돌며 아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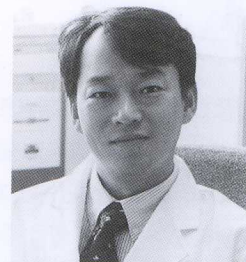
이 때문에 이곳 NICU에서 처음 일하기 시작한 모든 사람은 많은 새로운 경험을 배우게 된다. 우선 NICU는 조명이 어둡다. 외부로의 창문이 없는 것은 물론, 모든 조명은 간접조명인데 이는 신생아들을 위한 배려이기 때문에 누구 한사람 불평이 없다. 정작 당황되는 것은 혈액채취 또는 주사액을 투여하기 위해 주사를 놓을 때이다. 어른 손가락보다 가는 팔에서 혈관을 찾고 또 그곳에서 중심정맥을 잡으려면 웬만큼 섬세한 운동신경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미숙아에게 잘 발생하는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의 치료를 위해 폐계면활성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황당하다. 1Kg도 안 되는 미숙아를 들어서 이리저리 돌리며 기도에 약을 주입하는 모습과 고빈도호흡기를 이용하여 1초에 900번씩 호흡을 시키는 것 등은 다른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러한 생소함은 정작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병과 싸워가며 커가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임신 24주 만에 690그램으로 출생하여 3개월간 입원하고 퇴원하여 지금은 5살이 된 서영이, 태변흡인증후군으로 고생했던 지우, 체중 800그램 때 심장병수술을 받았던 은신, 체중 900그램 때 장 수술을 받았던 영석, 그들 하나하나 늘 새로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조연을 맡았던 우리를 감동시켜 왔다. 이런 감동적인 생소함과 아울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

지 않았던 아기들의 부모와 마음을 나눌어야 하는 안타까운 생소함도 NICU에는 많았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고 모이면 어느덧 NICU 고수가 되고 새로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생소함을 덜 느끼게 도와주려 노력하지만 이러한 생소함, 감동 그리고 안타까움은 직접 겪고 느껴야만 진정한 무렵의 실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에게 있어 NICU는 많은 우리 어린 환자들이 열연하고, 이들이 빛을 내도록 조연 역할을 하며 경험을 쌓아가는 많은 치료진과 함께

하는 무대이다. 비록 관객도 많지 않은 작은 무대이고 주연과 조연 모두 생소함으로 시작하는 무대이지만, 이들의 삶에 대한 열정은 뜨겁고 수많은 안타까움과 감동에 울고 웃으며 오늘도 새 생명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부디 이들의 공연이 항상 활기차고 보람되도록 기도해 본다.



박문성 교수 / 신생아 집중치료실 책임교수

## 젊은 날의 CCU

내가 심혈관계 집중치료실(Coronary Care Unit, CCU)과 인연을 맺은 것은 레지던트 2년차 때였다. 내과 1년차라는 초보의사 딱지를 떼어버린 5월쯤이었던 것 같다. 후배 레지던트가 새로 들어왔고 레지던트 2년차로서 중환자 진료도 만만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는 당시 2년차 순환기내과 레지던트로서 CCU에서 의식주를 모두 해결했다. CCU 귀퉁이에 창문도 없고 아주 좁은 당직실이 하나 있었는데, 안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나는 2인용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침대 2층은 온갖 잡동사니로 지저분해서 사실상 아래 침대 밖에 사용 할 수 없었다. 밤에 누군가 술이라도 먹고 들어오면 좁은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었다. 정말 피죤하기 그지없었다.

아침에는 새벽같이 나오시는 교수님과 회진 때문에 눈 비빌 틈도 없이 왔다 갔다 했고 회진이 끝나면 중재시술을 받고 심도자실에서 오는 환자와 응급실 호출, 다음날 열리는 컨퍼런스 준비로 한시도 편하게 지내지 못했다. 2년차 때 이미 순환기내과로 세부 전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던 터라 선배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고 임상강사 선생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뭐라도 하나 더 배우고 싶어 했었다. 드라마 외과 의사 봉달이에도 선보여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대동맥 내 풍선 펌프(IABP)의 기본 나쁜 쿵쿵거리는 소리에 익숙해졌고 급성 심근 경색증, 대동맥 박리, 폐동맥색전증 등 아무리 심한 중환자가 와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

아무리 바빠도 CCU 시계는 돌아가는 법. 일과가 끝나 오후 8~9시쯤 교수님들이 퇴근 하고 10시쯤 임상강사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하면 그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CCU 환자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다. CCU 당직 인턴과 밤번(night) CCU 간호사를 데리고 회진도 돌고 젊은 혈기에 온갖 폼을 다 잡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늦은 시간에 쉬고도 싶었을 텐데, 내가 정말 미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해 주었으리라 억지를 부려본다. 지금 생각에는 그 당시 심장초음파검사(echocardiogram)를 무척 배워 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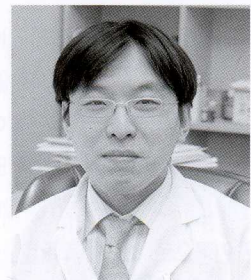
지금도 그렇지만 심장초음파 검사는 레지던트 2년차가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검사에 속한다. 당시 CCU에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HP1000이라는 엄청난 골동품 심초음파 기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기 힘든 브라운관과 큼직한 바퀴가 달려 있어서 많은 힘을 주어야 겨우 끌고 다닐 수 있는 고철이었다. 그걸 밤 10시부터 신나게 끌고 다니면서 CCU에 있는



▲ 최병주 교수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야간 공짜(?) 검사를 했다. 물론 돈 받고 할 만한 실력이 되지 못했다. 그래도 밤에 응급실로 내원해 진단이 붙지 않은 환자를 내 초짜 실력으로 검사해 아침에 뿌듯한 마음으로 차트 앞에 꼽아 놓고 자랑스럽게 아침 회진을 돌면서 교수님의 귀여움을 받았었다. 낮간지립지만 나도 귀여움을 받고 병원생활 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적당히 무게를 잡으며 아침 회진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러 매일 CCU에 들어서는데 당직 레지던트와 밤번 간호사들이 야간에 고생이 많았을 거란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저 일상적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나 자신이 율령이 시절을 잊은 개구리가 아닌지 반성한다. 나의 꿈과 열정을 키웠던 CCU에서 내 젊은 날을 돌이켜 보며 그때의 열정을 다시금 되살려 본다.



최병주 교수 /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책임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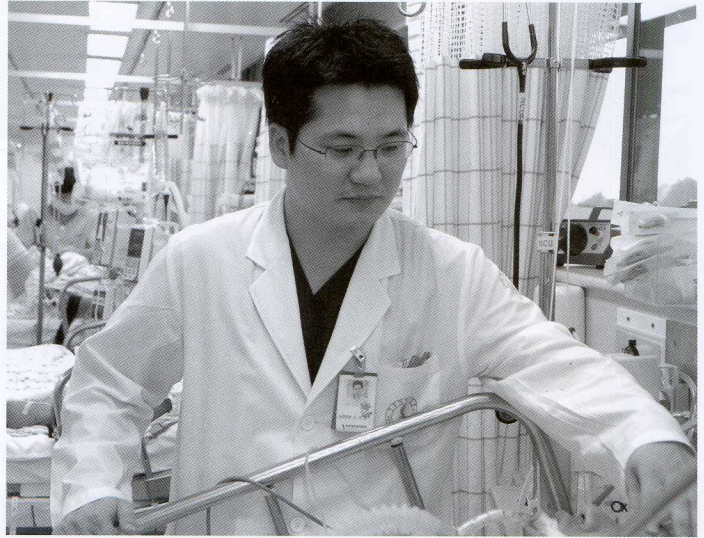
## 신경계 집중치료실에서 보낸 4년

내가 아주대학교병원 신경외과에 들어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간다.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1년차 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2006년 봄부터 신경계 집중치료실 옆에 붙은 손바닥만한 작은 당직실에서 나는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그 당시 나의 하루는 5시 30분경에 일어나 간단한 세면 후에 먼저 바로 연결된 신경계 집중치료실의 환자를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신경계 집중치료실의 환자 중에는 나를 알아보는 환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환자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인지 책에서 보는 것처럼 신경학적 검사를 하고 싶었으나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또한 어쩌나 고단하던 때인지 여름 내내 당직실의 구멍난 방충망으로 모기들의 습격이 있었으나 매일밤 모기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시설팀에 고쳐달라는 전화 한 통할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밤새 집중치료실에서 오는 호출을 받았건만 내가 잠깐 자는 사이 또 무슨 일이 생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아침에 집중치료실에 들어설 때는 먼저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 걱정이 앞섰다.

신경외과 환자의 특성상 급성 뇌출혈이나 뇌부종으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상태와 더불어 여러 내과적인 합병증도 겹쳐 있다 보니 뇌손상의 회복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뇌가 회복이 되어가는 중이어도 다른 문제로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의 의식 수준과 신경학적 상태가 나에게 중요한 관심거리다 보니 vital sign에 대한 호출이 주로 많은 다른 집중치료실과 달리 그래도 급성기 환자가 신경계 집중치료실에 있을 때 더 맘이 놓였었다. 그래서인지 1년차 때는 잘 몰랐으나 4년차가 되고 보니 신경계 집중치료실 간호사 선생님들께 참으로 고마운 생각이 든다. 그야말로 1년차 때는 신경계 집중치료실이 나에게 전짱타이면서 베이스 캠프였던 곳이었다.

4년차가 되어 신경외과 인턴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의식 없고 반신불수인 우리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더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록 밤을 새가며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던 환자들이 명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선을 다한 만큼 환자들은 반드시 고비를 넘긴다고 믿었기에 말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꿈쩍도 못하는 우리 환자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간단한 처치라도 조심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내가 인턴시절에 느꼈던 집중치료실은 적당히 냄새도 나고 환자들도 가



▲ 김성철 레지던트가 수술을 마치고 집중치료실로 전원된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까이 하기 힘들었다. 물론 지금이야 그 어느 곳보다 내게 익숙한 공간이 되었다.

레지던트 4년차가 된 지금까지 난 신경계 집중치료실을 거쳐 간 수많은 환자를 보아왔다. 그 중에는 반 혼수상태로 병원에 도착하여 신경계 집중치료실에서 죽을 고비 다 넘기고 이제는 외래에서 마주치면 나를 알아보고 웃으며 맞아주는 환자도 있고 사지마비로 입원하여 팔을 들 수 있게 되었다며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는 척수손상 환자도 보아왔다. 내가 그들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들이 먼저 내게 손을 내밀 것이라는 희망을 앞으로도 난 계속 가슴에 간직하고 싶다.



김성철 레지던트 / 신경외과

##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 소개



아주대학교의료원 집중치료실은 7개 분야, 총 119병상(격리실 25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남부에서 최고를 자랑하는 최신의 의료장비와 전문화된 인력으로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환자 병상마다 설치된 환자 감시 모니터와 자동정맥주입기, 인공호흡기는 물론 제세동기, 혈액투석기, 동맥혈압 모니터, 체외산소화기(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기(CRRT), 인큐베이터 등 최신의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

또한 전담의사와 전공의, 임상각과 전담간호사 그리고 173명의 간호사들이 밤낮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중한 정도를 분류하여 그 예후를 예측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전을 대비한 무정전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뜻하지 않은 재해 발생에도 즉시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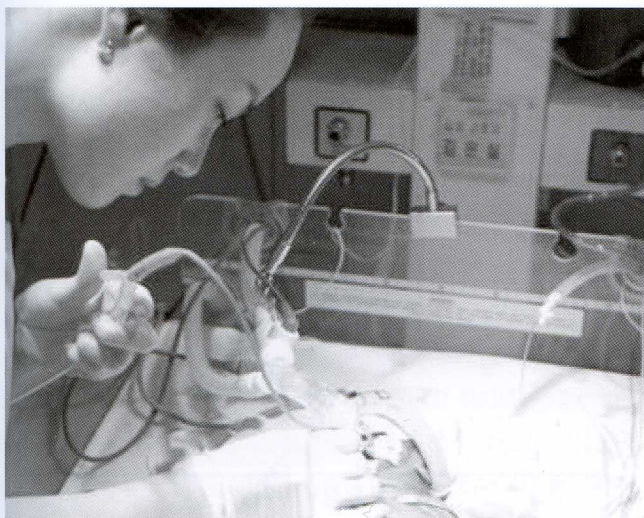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맞춤형 간호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내기 간호사를 위한 중환자 초급과정을 개설하여 최신장비와 질환 등 기초과정을 통하여 간호사로서 자리 잡음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년차 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중급과정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 교육은 시스템별 교육을 통해 중환자 전문간호사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4년차 이상 경력간호사를 대상으로 중환자 고급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호흡기계, 순환기계, 신경계의 심도있는 교육으로 각 중환자들의 특성에 맞는 보다 전문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강과 부서별 집담회를 통하여 최신의 간호동향과 질환 및 장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내과계 집중치료실

내과계 집중치료실(21병상)은 폐렴, 호흡부전, 전신감염, 신장질환 등 내과적 문제로 인해 인공호흡기나 집중감시가 필요한 환자의 집중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신장내과 등 중환자관리 최고의 전문가들과 전공의 그리고, 중환자간호과정 교육을 이수한 38명의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이 24시간 환자의 상태변화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치료와 간호를 시행하고 있다. 재원환자의 특성 상 높은 중증도, 고령, 부동, 부종 등의 상태로 인해 개인위생으로부터 가래흡인, 체위변경, 영양섭취, 정서적 지지 등 최적의 안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심하고 집중적인 간호를 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호흡기 및 혈액투석기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다. 결핵 및 감염환자 또는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3개의 격리실을 운영하고 있다. 욕창 발생률 감소 및 치유율 증가에 관한 연구, 배변관리 및 프로토콜 연구 등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최상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언제나 가장 맑고 깨끗한 산소를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내과계 집중치료실이다.

## 신경계 집중치료실

신경계 집중치료실(15병상)은 뇌출혈, 뇌종양, 뇌혈관질환, 척수의 신경계 질병 등이 있을 때 수술 전 후 집중적인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신경계의 다양한 장애는 급성기가 지난 후에도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경계의 해부생리에 대한 이해와 응급상황에 대한 전문 간호지식을 갖춘 신경외과 전담간호사와 24명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전문적 판단으로 빠른 대처와 간호로 의료진과



협력하여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한, 신경외과는 재원일을 감소시키고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SAH CP 개발에 힘써 2008년 QI 경진대회에서 수상하였으며 환자와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서로를 배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신입간호사가 가장 오고 싶어 하는 집중치료실로 뽑히기도 했다.

## 신생아 집중치료실

신생아집중치료실(26병상)은 31주 미만의 미숙아 및 출생 후 급성 호흡기 문제나 선천성기형,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들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곳이다. 경기도 내 최대 병상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면역력이 거의 없는 미숙아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신생아 전문 교수와 전공의, 숙련된 기술과 교육을 받은 간호사가 한 가족이 되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최상의 진료 및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출생 후 백일을 집중치료실에서 맞이하는 아가를 위한 「백일잔치」 미숙아부모를 위한 교육자료 와 Q&A를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개설, 미숙아로 태어나 훌쩍 커버린 건강한 아기들과의 만남 「이른둥이 잔치」등 세상에서 가장 작고 소중한 아기들을 위한 사랑의 치료공간이다. 출생 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신생아 심폐소생술」 교육을 경기도내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협력병원연수를 년 1회 실시하여 지역의료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 외과계 집중치료실

외과계 집중치료실(12병상)은 간이식 수술 및 위, 대장, 비장 등 소화기질환으로 수술 받은 환자들의 집중치료 및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특히 간이식 환자를 위한 2개의 특수 시설이 설치된 격리실과 간이식 간호과정을 이수한 간호사들이 배치되어 있어 간이식 후 빠른 치유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명의 간호사가 간이식 수술 환자 1명을 담당하여 전인간호를 시행하고 있다. 인공호흡관리와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유지를 위해 항상 집중치료실 실장과 전담의가 상주해 있으며, 장기이식간호과정, 중환자 간호과정, 상처간호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26명의 간호사들이 원활한 호흡 유지를 위한 표준화된 간호활동과 활력증상 측정, 영양섭취, 배변 배뇨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상태의 악화를 예방하고 치료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돕고 있다. 적절한 영양상태가 수술 후 환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주 영양집중지원위원회 모임을 통하여 환자의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흉부외과계 집중치료실**

흉부외과계 집중치료실(11병상)은 심장혈관기형 환자의 우회로술 및 폐암환자의 수술 후 집중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현장 지식과 기술, 경험이 풍부한 흉부외과 전담간호사와 24명의 간호사가 최고의 수술과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상태에 따라 호흡기와 체외산소화기(ECMO) 지속적 신대체요법기(CRRT) 등 최신장비를 이용한 지속적 치료를 하고 있다. 심장수술 환자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2명의 환자를 맡아 집중적인 전인간호를 시행하고 있으며 심장 수술 후 간호와 관련된 재교육을 통해 간호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임상과의외의 정기적인 집담회를 통하여 간호실무능력 향상과 중환자 간호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안위를 고려하는 환자 중심의 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호흡기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위해 비언어적 의사소통방법을 개발하는 등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사랑하고 연구하는 집중치료실이다.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심혈관계 집중치료실(8병상)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위험한 부정맥 등 중증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료와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질환의 특성상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치료 중에도 심장마비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곳으로 24시간 환자를 모니터링하며 전문화되고 특성에 맞춘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심장질환 환자는 퇴원 후 자가 간호가 중요하므로 퇴원 후 자가 간호를 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환자교육이 강조 되는 곳이기도 하다. 국내에서 흔하지 않게 침상이 모두 격리실로 되어 있으며 이는 질환이 매우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명료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심혈관계 집중치료실 옆에 심도자실이 위치하고 있어 응급한 경우 검사와 치료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다.

**응급 집중치료실**

경기남부권역 응급의료센터 3층에 위치한 응급집중치료실(20병상)은 국내 최초로 모든 환자감시 장치가 무선으로 중앙감시 장치로 연결되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며 비침습적으로 환자의 심박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환자의 폐활량 및 뇌파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장비, 급속가운 혈액 및 수액주입기 등 중환자를 위한 모든 첨단 장비를 구비하여 최선의 중환자 진료 가능하다. 특히 모든 병상에서 혈액 투석이 가능하도록 설비되어 있으며 인공호흡기가 1병상당 1대씩 20대로 모든 병상이 인공호흡기의 사용이 가능하고 3실의 격리실이 있어서 감염 환자나 특별히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6병상)은 시간을 다투는 급성 뇌경색환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기 치료를 통해, 사망률과 합병증을 감소시키고 조기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2007년 3월 개실 이후 중환자 치료에 많은 성과가 있어 왔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발병 3일 이내인 급성기의 뇌경색환자, 혈전용해제 치료, 일과성 뇌허혈 발작의 재발,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의심, 뇌혈관 촬영 및 뇌혈관 성형술(스텐트 등)을 하는 경우에 입실하게 된다. 응급실에서부터 전문적인 치료팀과 표준화된 진료지침을 적용하여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수행되며, 입실 후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신경학적 변화에 따른 전문적이고 세심한 관찰과 적시 치료, 저체온 치료 등 급성기 치료와 더불어 환자의 조기 재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태호전 후 일반병실과 연계하여 연속적이며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뇌졸중의 급성기 동안에 이루어지는 우수한 치료와 세심한 간호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함은 물론 재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환자보호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24시간 전문 의료진이 노력하고 있다.



김현실 팀장 / 특수간호팀





# 믿음과 신뢰를 주는 손

봄은 몸을 관리해보겠다는 생각에 요즘 수영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수영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능숙하고 멋있게 접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킁판을 잡고 열심히 발차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초보자들은 킁판을 무슨 생명줄 인양 손에서 놓칠까 동동거리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저랬는데...

처음 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새내기 때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선배만 졸졸 따라다녔다. 엄마 따라 시장에 온 유치원생처럼 선배가 눈에서 사라지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했고 할 줄 아는 일도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버리고 손발은 굳어버리곤 했다. 요즘에는 새내기들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 프리셉터가 있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어려워하는 것은 여전히 프리셉터를 많이 믿고 의지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리셉터를 「엄마」라 부르는가 보다.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들은 이렇게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선배의 손을 잡고 놓지 않고 있게 된다.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나의 첫 근무지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이었다. 미숙아의 보호자로서 「내가 엄마다」라고 스스로를 자연스럽게 세뇌시키곤 했다. 엄마니까 젖먹이고 기저귀 같이주고 그러면서 미숙아와 함께 생활했다. 건강해질 때 함께 기뻐하고 아플 때는 곁에서 손잡아 주는 엄마가 되었다. 우리의 기운을 조금이라도 넣어주려고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고, 어린 생명이 짧은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도 엄마처럼 아기의 손을 꼭 부여잡고 함께 울기도 했다.

그렇게 세뇌가 되어서인지 성인 환자를 돌보는 지금에도 난 환자의 손을 잡으려 노력한다. 보호자도 없이 낯선 곳에서 질병과 싸워야 하는 그들에게 보호자의 심정으로 힘껏 손을 잡아주곤 한다. 그렇게 잡고 있다 보면 생명의 끈이라도 잡은 듯 불안에 하며 있는 힘껏 잡고 놓지 않으려는 환자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반응하는 분이 대부분이다. 그런 환자를 보면서 가끔은 나를 되돌아 본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놓고 싶지 않으려는 그 손을 뿌리친 적은 없을까 하고...

그런데 요즘은 더욱 신경 쓰며 잡는 손이 있다. 환자를 병원에 맡기고 노심초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보호자의 손이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며 24시간 초긴장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손. 그 손을 잡고 있노라면 그동안 간병하며 마음 조리던 시간들, 눈물로



▲ 권혜언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환자의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

보내오며 하염없이 기다리는 마음을 풀어놓으며 조금은 가벼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 잠시 내민 손으로 서로가 조금은 통하는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 것 같다. 우리 손에 당신의 가족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우리도 당신의 가족을 위해 함께 가슴아파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신뢰감.

그래서 나는 손을 잡는다. 지금도, 앞으로도 보호자가 되어 내 두 손을 내밀어 힘껏 잡아드리고 싶다. 생명의 끈을 편안히 놓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손이 될 때까지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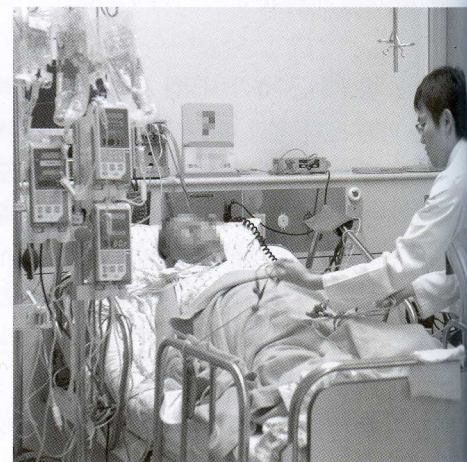
권혜언 간호사 / 특수간호팀

# 사진으로 보는 집중치료실 24시

집중치료실은 생과 사의 경계선이다. 위암, 간이식, 심장, 뇌종양 등의 수술을 마친 환자가 정상 회복을 위해 사투를 벌인다. 또한 노인성폐렴과 만성신부전으로 집중치료를 받는 환자, 세상에 너무 일찍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의존해야 하는 미숙아들까지... 그들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삶의 문턱으로 다가선다. 모두를 삶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아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은 언제나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집중치료실의 24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 글 · 사진 | 고제상

▶ 간호사 교대시간, 환자별로 변화사항과 특이사항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1:1로 인계하고 있는 간호사.



▲ 간호사가 폐렴환자의 가래제거를 하고 있다.

▲ 환자의 변화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ICU의 간호사

▲ 심전도검사를 준비하는 인턴의 바쁜 손길.



◀ 딸에게 간을 이식받은 51세의 남자환자는 수술결과가 좋아 다음 날 일반병실로 옮길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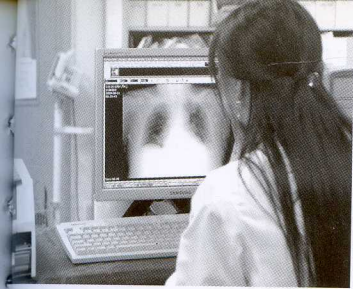
▼ 위암수술을 마치고 집중치료실로 이실한 환자에게 간호사가 산소호흡기를 준비하고 있다.



▲ 관상동맥폐쇄질환을 앓고 있는 73세의 여자환자가 심도자실에서 혈관조영술을 마치고 집중치료실로 이실했다. 간호사들이 수술부위 점검과 심전도 모니터링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 어린 손녀의 사진을 바라보며 병마와 싸우는 환자. 어린 아기를 위하여 모빌을 걸어 놓은 엄마의 사랑. 병상 위에 풍선을 달아 아빠의 쾌유를 바라는 딸의 정성이 보는 이의 눈시울을 젖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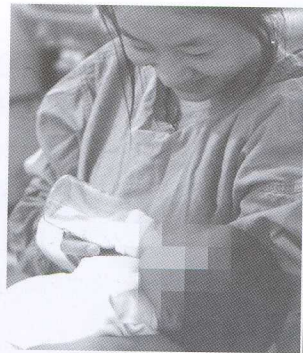


▼ 응급수술을 마친 환자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전공의와 간호사



▲ 새벽 2시. 몸은 피곤하지만 환자의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적절한 처방을 하여야 하는 전공의는 긴장을 늦출 수 없다.

▲ 아침마다 환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점검하고 부족한 물품을 채워 넣어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이들이 있어 빠르고 쉽게 중환자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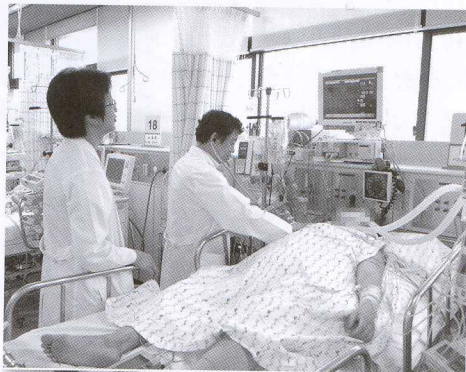


▲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간호사는 흡사 엄마의 모습이다. 아기에게 수유하는 모습간호사의 눈길이 따뜻하기만 하다.

▲ 하루에 세 번 뿐인 면회시간은 가족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보호자에게 환자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간호사.

▲▲ 환자를 면회하기 전 면회자는 환자와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반드시 손을 소독하고 입실해야 한다.

▼ 개흉수술을 받은 환자를 흉부외과 홍유선 교수가 진찰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다.



▼ 외과 왕희정 교수가 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상태가 좋아 일반병실로 옮겨도 좋다고 얘기하고 있다.



▼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가 폐렴환자를 청진하며 레지던트에게 처방을 지시하고 있다.



◀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가 어제 시행한 뇌종양 수술이 MRI 검사결과 너무 좋다며 환자와 기뻐하고 있다.

# 첨단 의료기술의 집약 - 최신 중환자 치료와

날이 갈수록 치료하기 어려워지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과 합병증, 상태가 불안정한 다장기 부전증, 고난위의 장기이식술 등이 필요한 중환자 치료는 늘 최첨단 의료기술과 장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의 첨단 의료의 집약체인 집중치료실 의료장비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 장봉희 (NCU파트장)

## 1. 지속적 신대체요법기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Machine)

중환자 치료는 많은 치료제가 주로 정맥을 경유 체내로 투여되며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신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다양하고 중환 질환상태에서 흔히 동반되는 급성 신부전의 경우에는 투석이 불가피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기존의 전통적인 혈액투석은 비교적 단시간(3~4시간)동안 많은 양의 혈액을 투석해야 하므로 일정한 혈압유지가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이에 비해 지속적인 신대체요법은 혈액학적인 상태가 불안정한 다장기부전(multiple organ failure) 및 기타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동반된 급성 신부전의 치료방법으로, 심혈관계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면서 다량의 수분을 제거하여 수액과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평형을 조절하고 소변량의 보존이 가능한 24시간 지속형 신장대체 치료법이다.

## 2. 수액자동주입기 (Infusion pu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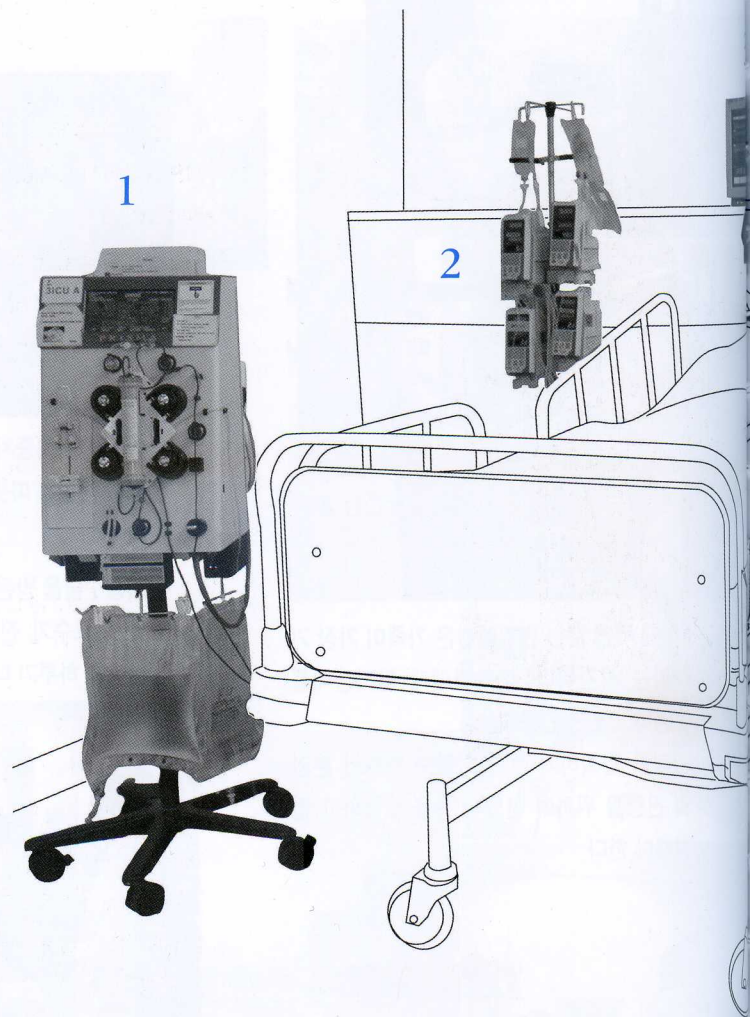
혈압을 조절하거나 주요 장기의 기능개선에 필요한 약물의 정맥주입 양과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한다. 모니터 링된 환자의 활력증후와 데이터를 참고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입되는 약물의 양을 조절한다.

## 3. 환자용 모니터와 중앙감시장치 (Patient & Central Monitor)

중환자의 치료적인 중요지표 즉, 심전도,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 호흡수, 각종 압력(중심정맥압, 폐동맥압, 뇌내압, 심방 및 심실내압) 등을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하는 장비이다. 비침습적 또는 침습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여주며, 24~72시간의 자료를 저장하고, 설정된 알람 및 부정맥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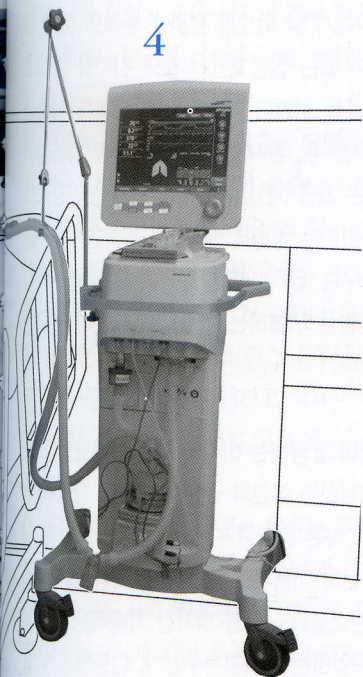
## 4. 최신 인공호흡기 (Respirator)

집중치료실에서의 대표적인 장비로써 호흡부전과 다장기 부전 및 뇌수술, 심장수술, 간이식, 기타 중요 기관의 수술 직후 또는 호흡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용한다. 최신 인공호흡기는 다양한 기능으로 환자에게 적합한 호흡치료가 가능토록 하며, 환자의 자발호흡을 최대한 지원하여 호흡노력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 시 점진적인 이탈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있다. 또한 각



# 장비소개

4



## 지속적 심박출량 및 혼합정맥혈의 산소포화도 측정기

(CCO & SVO2 Monitor, CCO ; Continuous Cardiac Output)

환자의 심장에 삽입된 도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하는 심박출량과 혼합정맥혈의 산소포화도를 자동적이며, 24시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장비이다.

심박출량은 1분당 심장에서 분출하는 혈액의 양을 말하며, 이는 심실의 기능과 박출효율 판단의 근거가 되며, 더불어 우리 몸의 혈액학적으로 중요한 지표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치료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혼합정맥혈의 산소포화도는 전체적인 조직의 산소공급과 산소소비량을 평가하는 지표로 대사와 질병상태를 반영한다. 이 장비는 개심술, 간이식수술 등 주요 수술환자와 다장기부전, 패혈증, 속 등의 환자치료에 적용된다. 최근 환자의 심장에 도관을 삽입하지 않고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심박출량과 혈액학적 지표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흉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한 임피던스에 근거하거나 경흉부 초음파를 적용한 심박출량 측정기가 그것이다.

## 뇌압 및 뇌관류압 감시장치

(ICP & CPP Monitor ; Intracranial pressure & Cerebral perfusion pressure Monitor)

두부손상, 뇌졸중, 뇌종양, 대사 장애 및 중추신경계 감염 등 두개강 내 병변에 의하여 발생하는 뇌 내압 증가 소견은 단시간에 비가역적인 뇌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다. 그러므로 상기 환자들은 뇌내압 상승 소견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두개강내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집중치료실은 물론 응급실이나 수술실, 병실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장비이다 수술실에서 삽입된 광섬유로 구성된 뇌내관을 통해 실시간의 뇌압과 뇌관류압을 24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된 자료를 저장하며, 충전하여 환자이동 시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간헐적 공기 압박 펌프 ( IPC ; Intermittent Pneumatic Compression Devices)

집중치료실 환자들은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등 사지 움직임에 제한을 초래하는 질환 외에도 치료에 과장된 지속적인 진정제의 투여나 침습적인 처치로 인해 부동 또는 움직임이 저하된 환자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의 혈류정체와 혈관내벽의 저산소성 손상악화로 인해 심부정맥에서 혈전이 생성되기 쉽다

생성된 혈전은 심장으로 유입되어 순환하다가 심장과 폐, 뇌 등 주요 장기에 색전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혈전이 발생하기 쉬운 하지에 간헐적으로 부위별 다른 압력을 줌으로써, 압력차이에 따라 정맥혈이 앞으로 추진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하여 혈전형성을 예방한다. 주요장기의 수술이나 외상환자, 출혈의 위험 때문에 항응고요법을 시행할 수 없는 환자에게 적용 한다

## 체외산소화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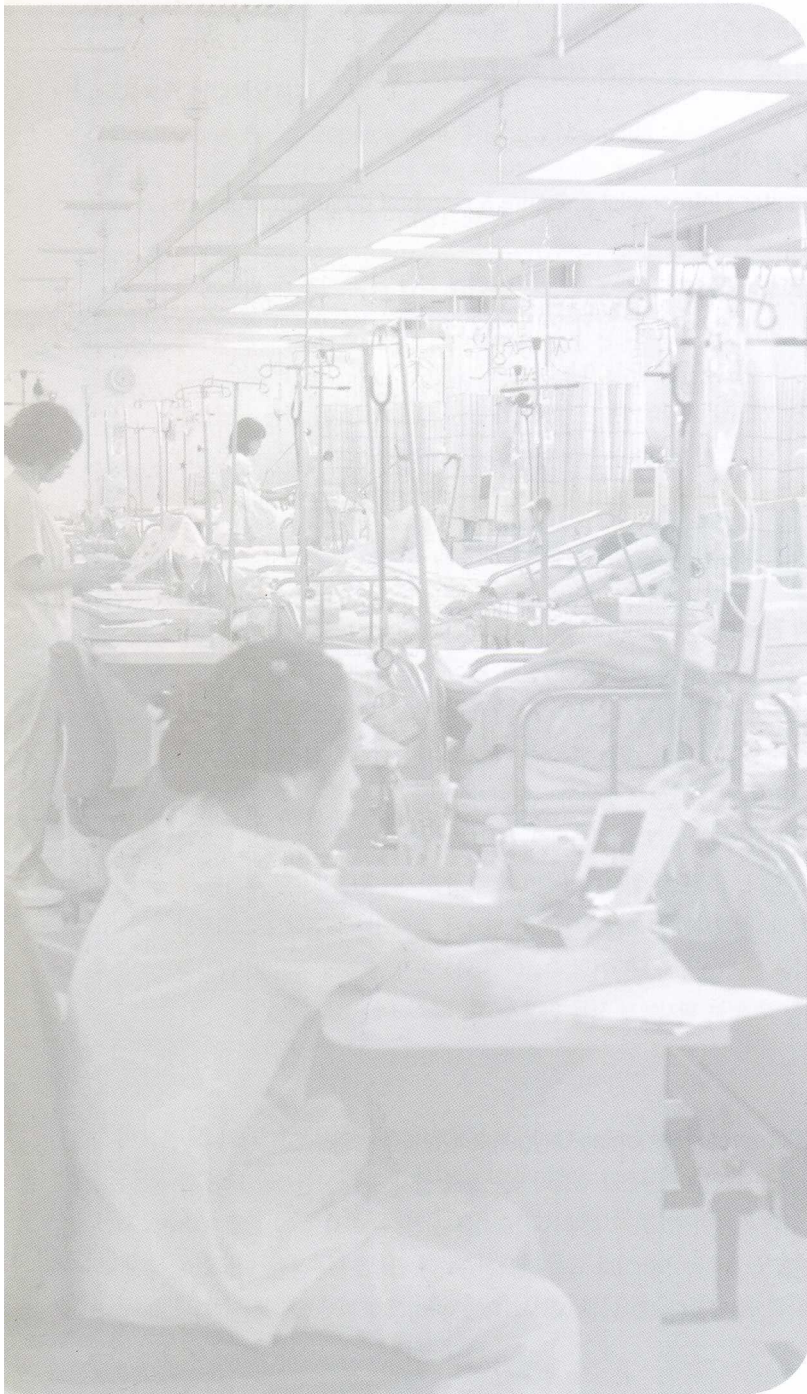
(ECMO ;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or 경피적 심폐보조기 )

심폐기능이 완전히 손상되어 산소가 심장박동을 통해 돌지 못하는 단계가 되면 혈액을 몸 밖으로 빼어내 체외산소화 기계에서 산소화를 시킨 후 다시 몸 안으로 넣어주는 인공폐의 역할을 해주는 장비이다 급성 폐색전증이나 급성호흡곤란증,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인성 속 또는 심정지 환자에게 적용한다.

환자의 다양한 호흡기능 지표를 측정하고 자료를 저장하며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치료에 부응토록 각 지표를 그래프와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내어준다. 현재 집중치료실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호흡기를 연령과 환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여 치료하고 있다.

## 집중치료실의 궁금한 점, 10문 10답

집중치료실은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의 사투가 벌어지는 곳이다. 많은 약물과 장치, 의료진의 분주한 손길. 안타까운 보호자의 마음까지... 집중치료실에 대한 궁금한 점을 호흡기내과 이규성 교수와 집중간호팀 김현실 팀장에게 물어봤다.



**Q. 집중치료실은 어떤 환자가 입실하나요?**

**A.** 집중치료실 입실 결정은 주치의와 집중치료실 전담의가 협의하여 정해진 입실기준에 맞추어 결정합니다. 주로 급성으로 진행되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집중적 감시 및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첫째 집중치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없는 집중적인 치료와 감시를 필요로 하는 환자 둘째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거나 지속적으로 심혈관 약물을 정주로 투입 받는 환자 셋째 수술 후, 환자의 상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호흡부전, 쇼크, 심혈관계 불안정으로 심혈관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사하면서 침습적 모니터링을 하는 환자입니다. 또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우는 35주 미만의 미숙아 및 출생 후 급성호흡부전이나 선천성 기형,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 고위험 신생아가 그 대상이 됩니다.

**Q.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집중치료실 환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급성기나 주요 장기의 수술 직후와 같이 급변하는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치를 위해 약물치료 및 각종 검사가 빈번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치료실 내에서는 혈압, 맥박,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모니터와 중요한 약물을 주입하는 수액자동주입기, 인공호흡기 등이 주로 사용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혈액투석기, 뇌압감시장치, 지속적 심박출량 측정기, 지속적 신대체요법기, 체외산소화기기 등 최신 의료장비가 사용되고 전문 의료진에 의한 집중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치료비가 일반 병동에 비하여 많이 발생합니다.

**Q. 집중치료실은 왜 면회가 제한되며, 면회시간이 너무 짧지 않은지?**

**A.** 집중치료실은 급변하는 상태에 따른 집중적 감시와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는 곳으로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여 필요한 처치가 자주 시행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잦은 면회나 긴 시간의 면회는 응급으로 필요한 처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치료실에 입실한 환자는 면역력이 약하여 감염에 이환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중치료실은 최소한의 의료진만 출입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Q. 환자의 손발을 묶어서 고정시키는 경우는 왜 그런가요?**

A. 첫 번째는 집중치료실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환자 몸 안에 여러 종류의 삽관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들은 환자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흔히 탈관됩니다. 이러한 비계획적 탈관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환자의 의식상태가 뚜렷하지 않아 낙상의 위험성이 있거나 스스로 상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적용합니다. 보호자가 보기에 안타까워도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위해 이해하여 주십시오.

**Q. 보호자가 없는데 환자간호는 어떻게 하나요?**

A. 집중치료실에서는 환자의 증증도에 따라 간호사 1명이 2~4명의 환자를 담당합니다. 환자별 모니터에 보이는 수치(심장 박동수와 리듬,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수 등)를 수치로 체크하여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변경과 마사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삼푸는 3일에 한 번 노린스 삼푸(물 없이 사용하는 삼푸)나 이동 삼푸(물)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목욕은 매일 부분 목욕을 하는데 환자상태에 따라 일주일에 한번씩 전신 목욕을 시킵니다.

**Q. 환자의 손발이 많이 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집중치료실 환자는 부동의 상태가 많고 또 수액공급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말초부위의 부종은 흔히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움직이게 되면 부종은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된 부종일 수도 있습니다.

**Q. 주치의 면담은 언제하며 병실 이동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주치의 면담은 아침 회진 시간에 맞춰 오시면 면담할 수 있는데, 그 외 시간에는 간호사에게 미리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연결해 드립니다. 일반 병실로의 전실은 환자상태의 호전 정도에 따라 주치의가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주치의 회진 시에 전실이 결정되며, 일반 병실로의 전실이 확정되면 보호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의 전실에 동행할 수 있도록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

**Q. 집중치료실에 면회 가면 환자가 항상 자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인공호흡기 치료 및 수술 후 안정을 위해 진정제가 투여됩니다. 인공호흡기는 환자에게 적합한 호흡치료를 하고 환자의 자발호흡을 최대한

지원하여 호흡노력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의 인공호흡기 치료 시에는 점진적인 이탈이 가능토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호흡기를 달게 되면 환자의 부적절한 자발호흡과 호흡기의 호흡이 서로 맞지 않아 환자가 힘들어합니다. 부적절한 호흡으로 오는 피로와 탈진으로부터 환자를 쉬게 하며 효율적인 호흡치료를 위해 환자는 필요한 기간동안 수면상태를 유지하여 치료받게 됩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점차적으로 깨어나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Q. 미숙아(이른둥이)는 커서도 건강이 좋지 않나요?**

A. 모든 장기에 부분적으로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으나 모든 미숙아에서 보이는 것은 아니며 주로 신경계, 청력, 시력과 관계된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퇴원 후에 외래진료를 통해서 확인되고 치료되는 문제이므로 퇴원 후 지속적인 외래진료는 필수입니다.

**Q. 이른둥이들은 난시 때문에 1년마다 눈 검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과검진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요?**

A. 이른둥이는 정상 만삭아에 비해 난시, 근시, 약시 등의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정상 만삭아들도 1년에 한 번쯤은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른둥이들에게도 강력 추천합니다.

〈정리: 고제상/홍보팀〉



##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셨던 K님

**초**등학교 시절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을 자주 모시고 다녔다. 병원을 찾을 때마다 할머니께 안부를 물으며 상냥하게 웃던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며, 나도 어렵고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간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 후로 20년이 지났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 병원에 입사하면서 내가 꿈꾸던 간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병동에서 외과 환자들을 간호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또 환자나 보호자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반성 어린 시간을 갖기도 한다. 내 기억 속에 유난히 마음에 남는 정형외과 환자 한 분이 계셨다.

8층 서병동은 대부분이 정형외과 환자들이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과 만성 염증질환, 외상으로 인한 수술 환자가 있는 곳이다. 내가 K님을 만난 건 2007년이었다. 사고로 인해 손상된 부위의 응급수술이 진행되었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K님의 어머니는 오랜 시간 동안 복도와 병실을 왔다 갔다 안절부절 못하시며 양손을 꼭 쥐고 기도하셨다.

긴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입실한 K님의 상태는 많이 다쳤다는걸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었고 어머니를 많이 앓은 모습이었다. 수술 후 몇 달 간의 지루한 입원생활이 계속 되었다. 보호자 침대에서 하루 이틀이 아닌 몇 달간을 한결같이 따스한 손길로 정성껏 간호하시던 막내아들께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나도 엄마의 병환으로 일주일 정도 보호자 침대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 4~5일 정도 지났을 때 집에 가서 씻고 잠 한번 편하게 자고 오겠다고 절없이 투정했던 기억에 K님의 어머니 앞에선 절로 고개가 숙여지곤 했다.

K님과 어머니는 나를 비롯한 여러 간호사에게 많은 것을 마음으로 주셨던 분이였다. 식사를 거른 것 같다면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고 종이학을 접어 간호사들에게 선물로 주기도 했다. 공구를 달라고 하여 휠체어를 고쳐 주었고 같은 병실에 새로 입원한 환자께 자상하고 배려 깊은 설명도 해주었다. K님과 어머니를 볼 때면 「나는 일하면서 작은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구나!」를 느끼곤 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분. 그분의 말씀 한마디, 작은 손길, 소리 없이 웃어 주시는 주름 깊은



은 웃음, 이 모두가 우리에게겐 힘이 되었다.

또 여러 번의 재입원에 짜증도 나고 속도 상황 텐데 입원하면서 한결 같이 병동 간호사들의 안부를 물으셨다. K님이 묻는 안부에 우리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데 정작 K님의 입원소식은 좋은 일이 아니기에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옛날의 나의 꿈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배려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간호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K님을 생각할 때면 가족의 사랑, 진정한 간호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되묻게 된다. K님을 만난 건 나를 알고 찾아가는 좋은 시간이었고, 소중한 만남이었다. 소리 없이 주름 깊은 웃음을 주신 K님의 행복과 건강을 진심으로 기도한다.



김보민 간호사 / 병동간호2팀





# 환자를 위한 첫 걸음, 잊지 않겠습니다

**새**삼 달력을 넘겨보았다. 휴일이 며칠 남았는지, 힘든 이번 스케줄 끝내려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했던 그리고 숨 가쁘게 달려왔던 시간들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놀라고 기쁘고 아쉽기도 한 나의 마음이 머릿속에 수십 번 교차하고 있다.

실습을 마치고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이 도서관 책상을 짹짹 채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나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되어 있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다. 그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에만 부풀어 수월이라는 낮은 선 도시와 모교가 아닌 병원생활이 어느 정도 힘들지에 대한 생각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발 먼저 들여놨던 인턴생활은 기대와 달리 이방인으로써 적응해야 하는 외로움과 이제껏 겪어 본 적 없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뼈격이는 이층침대에서 며칠 밤을 잠 못 이루게 했다.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내 위치에서 환자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몰라 첫 한 달간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따뜻한 의사가 되겠다던 수백 번의 다짐이 초등학생 반장선거의 뻔한 레퍼토리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은 인턴 생활 두 달째 접어들 때였다. 드레싱 해줄 내과 환자가 선생님이 새로 바뀌었나며 긴장하고 있는 나를 웃으며 도리어 드레싱 방법을 가르쳐 주던 그 순간이었다.

그렇게 쭉뚝뚝 시작한 내과 인턴생활. 처음에 내가 먼저 환자에게 친절하게 말을 건넰던 것은 내 긴장을 풀기 위해 그리고 나에게 대한 환자의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어쩌면 방어적인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오늘 아침은 환자 상태가 어떤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회진 후 먼저 가서 살폈던 것도 조금이라도 호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나의 사소한 관심조차 환자에게겐 힘이 되고, 환자가 많이 고마워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된 것



▲ 이숙영 인턴이 환자의 혈압을 체크하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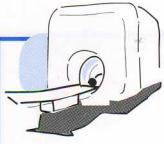
과 도리어 나를 위한 환자, 보호자들의 배려, 나에게 대한 믿음과 의지였다. 어쩌면 그것은 일 하면서 내 자신이 뿌듯하고 자신감 생기고 의욕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진짜로 뛰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로 몇 번이고 다짐하게 했던 시간이었다.

아직도 어색하고 쑥스러운 「의사선생님」이라는 명칭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나를 담당하게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두 어깨가 무거워 져야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본다. 의사로서 나를 발전시켜야 하며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조차 고개 숙여 나를 대할 때 더욱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할 것을 명심한다.

어떤 의사가 될 것인지 수없이 해왔던 내 다짐이 한번 무너져 내린 다음에야 다시 아무지극 차곡차곡 쌓아져 가는 듯하다. 내 자신이 다행스러운 건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만족하고 있으며 아직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환자가 많고 일이 고되지만 그만큼 보고 배울 수 있어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도 많기에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 인턴 때의 초심이 언젠가는 무뎠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며 남은 인턴생활이 나태해지지 않고 한 가지라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숙영 인턴 / 교육수련부



# 최첨단 혈관조영촬영 Allura XPER FD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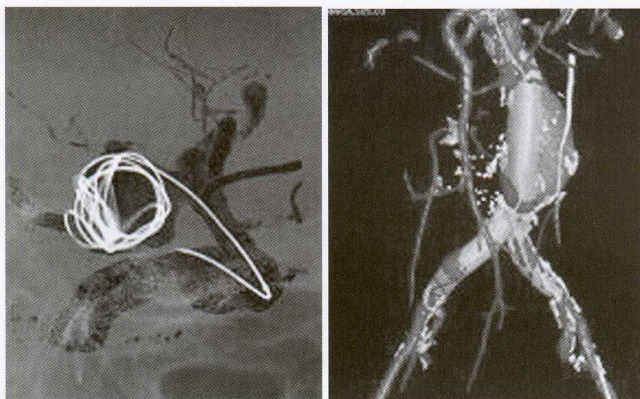
이주대학교병원에서는 2009년 8월부터 혈관조영촬영 Allura XPER FD 20 장비를 도입하여 가동에 들어갔다.

최신 혈관조영촬영장비 Allura Xper FD 20은 두부, 흉부, 복부, 사지 혈관 등 인체 내의 모든 혈관의 이상 유무를 조영 진단하고, 더 나아가 혈관내 치료를 시술하는데 쓰이는 초정밀 최첨단 기기이다. 영상의 획득, 처리, 시현 및 저장 과정에서 화상의 해상력이 매우 탁월하고 영상의 실시간 디지털 3D영상 시현이 가능해 효과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도와준다.

## 고해상력 영상 기법으로 혈관 질환의 효과적 진단 및 치료

혈관 조영검사는 인체 내의 혈관에 카테터(catheter)라는 2mm 내외의 가는 관을 넣어 X-선이 투과되지 않는 조영제(contrast media)를 주입하면서 X-선을 조사하여 혈관 영상을 얻고, 이를 통해 병변의 이상을 확인하거나 이상이 있는 병변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는 장비이다.

Allura Xper FD 20은 최대 4메가픽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평판형 검출기(flat panel detector)를 사용하여 유리한 진단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의료



▲ (사진 좌) 뇌혈관 동맥류 3D영상과 투시영상을 겹쳐 보는 영상.  
(사진 우) 복부대동맥류 영상에서 가상으로 시술하는 영상



진은 미소 병변을 비롯하여 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벤션(중재적) 시술시 미소 병변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졌다.

## 최소한의 X-선과 조영제로 환자의 안전 제고

Allura Xper FD 20은 기존의 영상증배관(Image Intensifier)을 대신하여 평판형 X-선 검출기(Flat Panel Detector)를 사용하여 환자의 진단 및 중재적 방사선 치료에 사용되는 방사선 선량으로 인한 피폭을 감소 시킴과 동시에,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우수한 영상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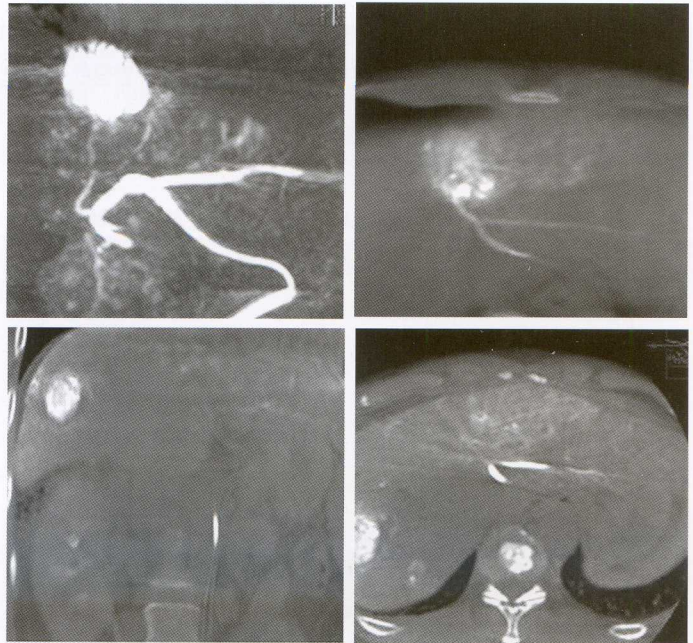
또한, 혈관조영상을 얻기 위해 주입해야 하는 조영제의 양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검사 및 인터벤션(중재적)시술에 소요되는 시간도 기존의 장비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

3D 영상 시뮬레이션으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치료 지원

## 장비 도입

최근 개발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X-선 튜브와 검출기(detector)가 같이 회전하여 영상을 획득한 후, 이를 3D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치료 과정을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고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사용한 중재적 혈관 시술에서는 혈관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를 2D 영상으로부터 찾아야 했으나, 필립스의 디지털 혈관조영촬영장치 Allura Xper FD 20은 획득한 3D 영상과 X-선관을 연동시켜 의료가 시술 중에 3D 영상을 보면서 최상의 각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원하는 각도로 자동 회전되므로 매우 효율적이다. 또한 환자에게 직접 중재적 시술을 하기 전에 획득한 3D 영상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치료에 도움이 된다.



▲ 간동맥 화학색전술(TACE) 후 Xper CT를 이용한 Liver CT 영상

### XPER CT를 이용한 간동맥 화학 색전술 치료 성적 평가

Xper CT는 CT로 영상을 획득한 것과 같이 환자의 Softtissue를 비롯한 모든 부위를 2D 영상과 3D 영상 이외에 Axial, Coronal 및 Sagittal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능으로 Xper CT는 시술을 해야 할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이 가능하게 도움을 주며, 시술이 완료된 후에도 바로 Xper CT로 다시 검사하여 치료 후 성적을 바로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조기 간암의 미세 병변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관조영촬영 검사 후 환자를 CT 검사실로 이동하여 검사 하던 CT Hepatic Angio(CTHA)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CT검사와 진단 및 치료 성적을 평가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장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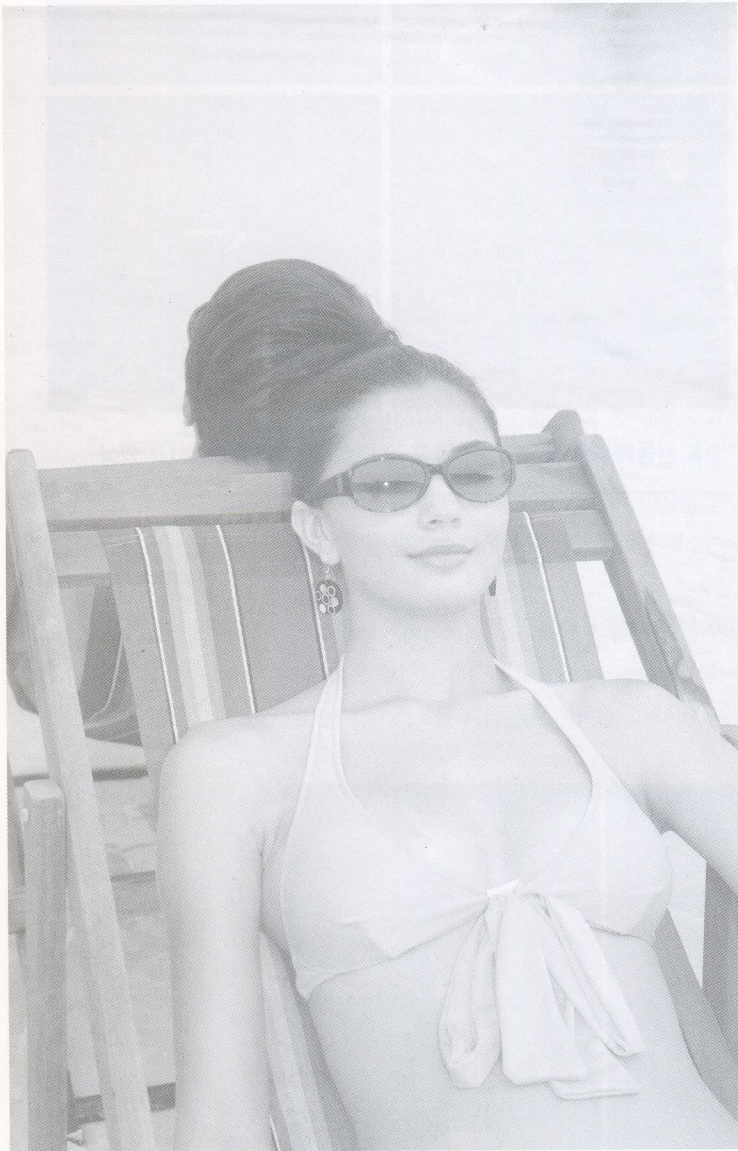


원제환 교수 / 영상의학교실



## 비타민 D수치 감소, 태양광이 정답인가?

아주대학교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는 미국 암 연구기관(American Institute of Cancer Research)에서 발표하는 최신지견과 그 외에 대체 보완요법에 관한 최신뉴스를 게재한다. 본 내용은 미국 암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내용으로 우리나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보는 정보일 뿐 연구결과와 실제 적용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 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비타민 D 수치는 지난 20년간 확연히 감소했다고 한다. 미국인의 4분의 3 가량에서 비타민 D 수치가 현재 건강을 위해 적정하다고 보이는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얼마만큼의 태양광노출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태양광 노출만이 전체 해답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고 있다.

1988년부터 1994년,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에서 시행한 국민 건강 조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차 조사에서 1차에서보다 명백한 비타민 D 결핍이 2~6%정도 증가했다. 현재의 적정 기준을 만족시킨 비율은 1차 조사에선 45%였는데 2차 조사에서는 23%만이였다. 가장 감소 폭이 큰 인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서였다. 가장 최근 조사에서 29%에서 비타민 D 수치가 결핍을 보였고 3%만이 적정 수준이였다.

대부분 비타민 D라고 하면 뼈와 관련된 것을 생각한다. 그러나 기능적으로 호르몬인 비타민 D는 뼈와 관계된 기능을 뛰어넘어 암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 등을 포함해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어떤 조직에서는 정상 세포의 발달을 돕고 암의 특징인 조절되지 않는 세포 성장을 막는 암 억제 유전자를 작동(turn on) 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D는 세 가지 경로로 흡수할 수 있는데 음식, 햇빛, 영양 보충제가 그것이다. 현재 하루 권장량을 미국식 식단을 통해 섭취하려면 힘들긴 하지만 가능하긴 하다. 일주일에 생 연어를 3번 먹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건 친환경적이지 않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 이는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요구르트, 주스나 다른 생선과 곁들여 달걀, 치즈, 강화 씨리얼 등에서 일부 섭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재의 비타민 D 권유량은 생후에서 만 50세까지는 하루 200IU(International unit)이고 51세에서 70세까지는 400IU, 71세 이상은 600IU이다.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아이들과 10대에게 400IU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권유량은 종종 적정혈중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개정된 권유량은 2010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어떤 전문가들은 1000에서 2000IU를 권장하고 있으며 그 용량은 안전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수치는 음식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수치이다.

비타민 D의 많은 양이 태양빛에 노출된 피부에서 생성된다. 자외선 B에 노출 시 피부에서 비타민 D 전구물질이 생성되고 이는 다시 간과 신장에서 활성 비타민 D로 바뀌게 된다. 문제는 이 자외선 영역과 세포의 DNA 손상과 광발암 현상이 일어나는 영역이 일치 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과다하게 도포시 비타민 D 저하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여러 연구에서 자외선 차단제가 혈중 비타민 D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중단하는 정도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제에 의해 비타민 D 저하증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최근 보스턴 대학의 마이클 홀릭 같은 연구자들은 일주일에 2~3차례 한 낮에 10분 정도 팔다리를 노출 시키는 것으로 피부암 위험을 높이지 않으면서 비타민 D 생성을 증가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색 인종의 경우 이 정도의 노출로는 비타민 D가 충분히 생성 될 수 없으므로 비타민 D 저하증이 있거나 의심될 경우 비타민 D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비타민 D 보충제 투여가 보다 이상적인 치료로 볼 수 있겠다.

우리가 적정 태양광 노출이 건강한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합의를 기다리는 동안, 대부분 과학자들은 비타민 D의 피부 생성은 제한적이라는 데 똑같이 동의하고 있다. 적어도 가볍거나 중간색의 피부색이면 몇 분 이상의 태양광 노출 지속은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는 않고 오히려 피부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태양광에 노출이 되던 그렇지 않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 보충이 적정 비타민 D 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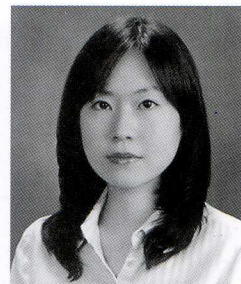
#### Nutrition Notes

Week of July 20, 2009

Karen Collins, MS, RD, CDN

American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 자문: 방사선종양학교실 전미선 교수, 피부과학교실 이은소 교수,  
병리학교실 주희재 교수, 가정의학과교실 김범택 교수



최승화 임상강사 / 가정의학과교실

# 아의(亞醫) 선생

제40편 - 십오야 밝은 ♪ 아주까리 동백꽃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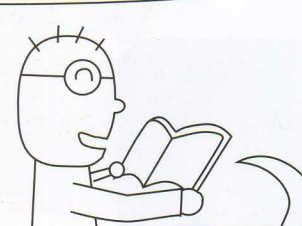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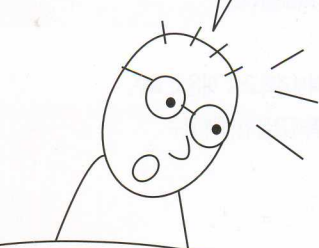


글: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그림: 홍보팀 오은영 계장

아주대학교병원은 2009년 9월에 15살이 되었습니다. 1994년 9월에 태어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아니 벌써?

15살이 된 아주대학교병원한테 축하 노래 두 곡을 부릅니다.

십오(15살)야 밝은 ♪...  
아주(아주대학교병원)까리 동백꽃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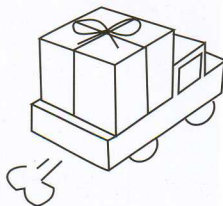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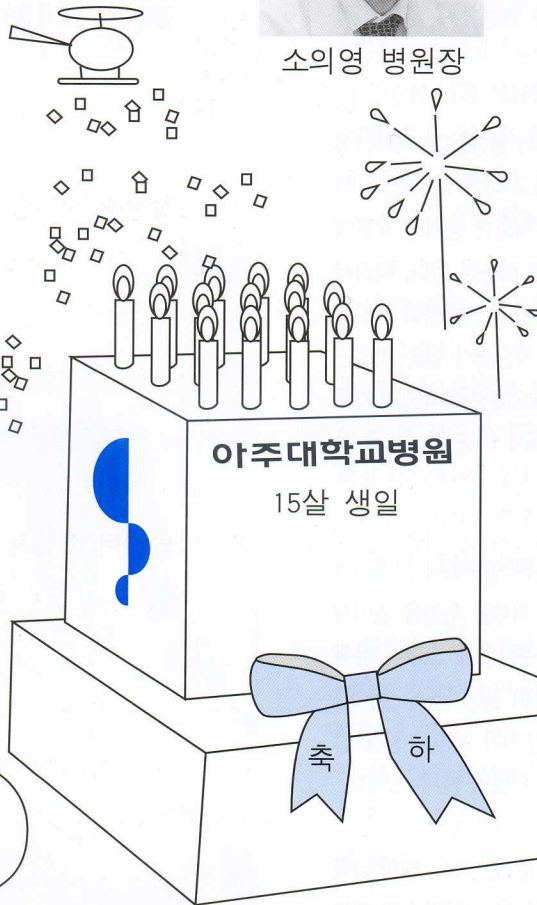
소의영 병원장

15살이면 사춘기입니다. 따라서 아주대학교병원은 아직 미숙하지만, 사춘기가 지나면 어른스러워질 것입니다.

15살을 맞이한 해(2009년)가 소 띠이고, 15살을 맞이한 병원장도 소 씨입니다. 소 병원장의 장점은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단점은 소처럼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살을 맞이한 해(2014년)는 말 띠이니까, 그 때 병원장은 마 씨이겠네.

아주대학교병원에 마 교수가 없는데 어찌지? 말처럼 얼굴이 긴 사람을 병원장으로 뽑아야 하나?



교직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참가할 만한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이 소식지의 다른 기사(건강강좌, 걷기대회, 음악회)를 보십시오. 공짜입니다.

## 의료원 ▶▶▶

### 소의영 병원장, 박명철 기획조정실장, 김홍수 제2진료부원장 연임



▲ 소의영 병원장



▲ 박명철 기획조정실장



▲ 김홍수 제2진료부원장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지난 8월 28일 제277차 법인 이사회를 열어 소의영 병원장, 박명철 기획조정실장, 김홍수 제2진료부원장이 9월 1일부로 연임했다.

제9대 병원장이 된 소의영 교수는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외과 전임강사를 거쳐 1992년부터 아주대 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분비 및 두경부 외과 전문의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갑상선 외과학을 연수했으며, 아주대병원 개원 후 갑상선 질환과 관련 5천여 건 이상 수술했다. 의학부장, QI실장, 기획조정실장, 병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병원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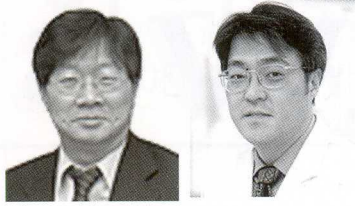
박명철 기획조정실장은 1979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아주대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소아기형, 유방성형, 미용성형. 두경부재건 전문의로 영국 Canniesburn 병원 및 미국 New York Sloan Kettering 암센터에서 두경부 재건 및 유방재건에 관해 연수한 바 있다. 1997년부터 매년 동남아 지역의 선천성 기형아동을 대상으로 무료로 구순구개열 수술을 해 주고 있다. 제2진료부원장을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김홍수 제2진료부원장은 1985년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고 연세대 내과 연구강사를 거쳐 1994년부터 아주대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만성신부전증의 진행,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전문의로 미국 워싱턴대학 Pediatric Nephrology(소아 신장학)을 연수한 바 있다. 진료의뢰센터 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 제2진료부원장 직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2009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 교원으로 △응급의학과교실 조교수 최상천, 재계약임용 교원으로 △병리학교실 부교수 주희재 △미생물학교실 조교수 권명희 △응급의학과교실 조교수 민영기를 임명했다. 승진임용 교원은 △생화학교실 이재호 교수 △의과학연구소 손성향 교수 △의과학연구소 이광 부교수 △응급의학과교실 정윤석 부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채윤정 부교수 △예방의학교실 박재범 부교수) △간호대학 박진희 조교수를 임명했다.

## 의과대학 ▶▶▶



### 곽병주 교수 「AAD-2004」임상1상 돌입

약리학교실 곽병주 교수(사진 왼쪽)가 총괄책임 맡고 있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신약인 「AAD-2004」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임상연구 승인을 받았다.

「AAD-2004」는 다국적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아주대학교의료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의를 통과, 임상시험센터의 예영민 교수의 주도하에 임상 1상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곽병주 교수는 「AAD-2004는 지난 6년간 200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동물모델에서 우수한 약효를 입증하고 탁월한 안전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임상 1상에서 약효용량의 안전성은 무난히 검증될 것」이라고 말하고 「2010년에는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검증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에 참여했던 정신과 노재성 교수(사진 오른쪽)는 「AAD-2004는 우울증 동물모델에서 이중맹검법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탁월한 약효가 입증돼 혁신적인 항우울제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임상 1상이 완료되는 대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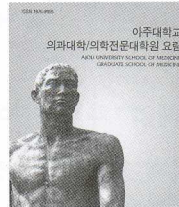
### 류마티스관절염 · 루푸스 정보 만화제작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서창희 교수팀이 류마티스관절염과 루푸스에 대한 질병정보 만화 2편을 제작했다.

이번 만화는 알레르기·류마티스내과 서창희·김현아 교수, 해부학교실 정민석 교수, 아주대의대 민경재 학생, 박성남 의학일러스 트레이터가 공동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아주대병원 홈페이지 「질병정보」와 「튼튼선생의 건강이야기」에서 볼 수 있다.

### 의과대학/의전원 요람 2집(2009~2010)발간



의학문헌정보센터에서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요람 2집(2009~2010)을 발간했다.

이번 요람에는 각 교실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학부교육, 대학원교육, 연구방향 및 분야, 연구교류, 학술대회 활동, 주요 진료분야 및 교수별 세부전공 등 현황과 학사 전반에 대한 소개가 담겨있으며, 교학팀에서 전임교원과 학생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 이정근 교수 세계인명사전 후즈후 두 곳 동시 등재

치과학교실 이정근 교수가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의 「메디슨 앤 헬스케어」 2009~2010년판과 「아메리카」 2010년판에 동시에 등재된다.

이정근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는 악안면골재생 및 재건과 관련된 골생물학이며, 이번 등재로 이 교수는 마르퀴즈 후즈후 인아시아(2007), 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2008), 마르퀴즈 후즈후 인아메리카(2009)에 연속하여 이름이 실리게 됐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미국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으로, 해마다 과학, 정치, 경제, 사회, 의학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내어 영향력을 크게 발휘한 저명인사 5만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 간호대학 ▶▶▶

###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교환학생프로그램 시작

아주대 간호대학과 캄보디아 라이프대학간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8월 31일에서 10월 9일까지 6주간 캄보디아 라이프대학 간호대학 남학생 2명이 우리 간호대학과 병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간호대학은 지난 해 7월 14일 「아주·라이프대학교 협력관계 체결식」을 열고 양 대학교가 △학생 및 교직원 교환 △연구교류와 상담활동 △세미나와 학술회의 참석 △학술정보 및 자료교환 △특별단기 학술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추진 등에 대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보건산업대상 보건복지부가족부장관 표창

아주대학교병원이 8월 19일 리츠칼튼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자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에 아주대병원은 보건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선진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대기업부문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은 것이다.

대한민국보건산업대상은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이사장 이기우)가 주관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상으로, 매년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에 공로가 큰 기업을 발굴, 표창해 보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보건사업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아주대병원 소의영 병원장은 『위기를 느끼지 않는 기관은 발전이 없다는 말처럼 아주대병원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 아주대병원 로봇 수술 100례 달성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8월 4일 오후 6시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 연회장에서 「로봇 수술 100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아주대병원 로봇 수술 통계 및 갑상선수술(외과 이잔디 교수) △로봇 전립선 수술(비뇨기과 김선일 교수) △로봇 위암 수술 및 로봇 수술의 미래(외과 한상욱 교수)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다.

한상욱 교수가 발표한 로봇 수술 통계에 따르면, 아주대학교병원은 2008년 10월 20일 첫 로봇수술 이후 2009년 7월 9일 100례를 달성했으며, 2009년 8월 3일까지 총 116례를 실시했다.

로봇 수술 116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갑상선암 73례(62.9%), 위암 29례(25%), 전립선암 8례(6.9%), 난소 종양 5례(4.3%), 담관낭종 1례(0.9%)였고, 진료과별로는 외과 103례(88.8%), 비뇨기과 8례(6.9%), 산부인과 5례(4.3%)를 진행하여 타 대학병원에 비해 외과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로봇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개복 수술에 비해 입원 또는 회복기간이 짧고 흉터가 적어 만족도가 높았고 합병증 발생이 적었다.

이날 기념식에서 소의영 병원장은 『작년 10월에 로봇 수술을 시작한 후 짧은 시간에 100례를 달성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는 많은 의료진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로봇 수술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개원 15주년 기념,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공개강좌 개최

아주대학교병원은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역주민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오는 9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건강 공개강좌」는 9월 8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화요일에 아주대학교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9월 8,15,29일은 오후 1시 30분에, 9월 22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가족 구성원별 맞춤형 건강강좌 성격으로 아빠, 엄마, 아이, 할아버지·할머니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좌별 특성에 맞는 심전도, 체지방 분석, 혈압측정 등 간단한 검진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9월 8일은 「아빠를 위한 건강강좌」로 △전립선 질환(비뇨기과 김세중 교수) △남성갱년기(가정의학과 김광민 교수)를, 9월 15일은 「엄마를 위한 건강강좌」로 △갑상선 질환(내분비대사내과 김혜진 교수) △유방암(외과 정용식 교수)를, 9월 22일은 「아이를 위한 건강강좌」로 △성조숙증(소아청소년과 황진순 교수) △비만(가정의학과 김택태 교수)를, 9월 29일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건강강좌」로 △고혈압(순환기내과 신준한 교수) △요실금(비뇨기과 김영수 교수) △치매환자 가정간호(간호부)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강좌는 사전 접수 없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 60주년 경축행사 축하방문



아주대학교병원은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의 초청을 받아 소의영 병원장과 법인 이영현 상임이사, 김흥수 제2진료부원장, 정운석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 송응준 노조지부장, 축구회 등

아리 회원 등 총 17명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8월 6일에서 10일 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이번 초청은 「용정시 인민병원 개원 60주년 및 의사의 날 설립 1주년 경축행사」를 맞아 이뤄진 것으로, 방문단은 개원기념 행사 참석, 임상 학술발표, 친선 축구대회 등에 참가하는 일정 외에도 양 병원간 향후 협력방안 논의, 연변대학부속병원 교류 협력모색 등을 진행했다.

병원은 중국 용정시 인민병원과 지난 2006년 10월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을 오가며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환자선량 저감화 선도병원」 지정

아주대학교병원이 지난 7월 30일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환자선량 저감화 선도병원」으로 지정 받았다.

환자선량 저감화 선도병원이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환자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만들었으며, 아주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전국 85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24개 의료기관이 지정됐다.

환자선량 저감화 선도 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흉부 등 8개 일반 촬영 및 CT 촬영 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의료기관 현장에서 측정하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기술적 노하우를 전파하는 중심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아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는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2008년도에 「환자의 방사선 피폭선량 경감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QI활동을 한 바 있으며, 환자와 보호자,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아주대학교병원은 대한영상의학회가 주관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영상품질관리 모범병원」으로 지정돼 의료의 질 향상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신문 · 방송에 보도된 아주대의료진

신문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8.03	조선일보	아주대 의대	불붙은 '약대 전쟁' ... 30여개대 유치 추진
8.04	경기일보	이비인후과 박현이 교수	의학칼럼- 물놀이 계절, 귀 질환 주의보
8.05	중부일보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로봇 수술 100례' 돌파
8.07	인천일보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로봇수술 100회 돌파
8.10	중앙일보	재활의학과 윤승현 교수	커버스토리- 수영의 진실
8.12	조선일보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차매막으려면 매일 친구 만나고 걷기 운동하세요
8.12	조선일보	알레르기내과 박해심 교수	'환상담글' 주의하세요
8.12	경기일보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로봇수술 116건
8.17	인천일보	내분비내과과 정윤석 교수	아주대병원, 골다공증 치료 공개강좌
8.18	동아일보	아주대병원	[광고 제3회 대한민국보건산업대賞 종합대상
8.19	동아일보	마취통증의학과 김찬 교수	'만성통증, 무작정 참지 말고 통증치료제 처방 받으세요'
8.19	매일경제	외과 소의영 교수	영국영국진행 갑상선암 수술 반드시 해야 하나
8.21	경인일보	아주대병원	아주대병원 보건산업대상서 종합대상
8.24	중앙일보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고열·기침 없어도 의심하다... 도미노 사주면 힘들어요
8.24	인천일보	소의영 병원장	아주대병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8.24	동아일보	아주대 의대	한약에 11곳 치의예 3곳... 상위권 물려 불꽃경쟁 예고
8.24	경인일보	아주대병원	약발 안발는 신종플루 대책
8.25	경인일보	아주대병원	신종플루 확진환자 1천명 돌파
8.25	중부일보	아주대병원	격리실도 없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8.25	동아일보	아주대 의대	좁아진 의술의 문 성직우수·눈술전형으로 통과
8.25	경인일보	피부과 김유찬 교수	악성흑색종과 유사한 '한국인 스페르모반' 검별주의
8.26	경기일보	내분비내과과 정윤석 교수	골다공증 공개강좌·무료 골밀도 측정
8.26	중앙일보	아주대병원	일반환자 감염 막을 대책 있나...
8.26	한국일보	아주대병원	투약기준 특하면 비핵 당국이 진료혼선 키워
8.26	스포츠서울	해부학교실 이영돈 교수	대학·기업체 지원받아 신약 후보물질 개발사업 추진
8.27	조선일보 외	아주대병원	<인사> 적정진료관리실장 외
8.31	중앙일보	방사선종양학과 전미선 교수	썬막 단산- 아주 행복한 걸기대회
8.31	인천일보	아주대병원	<인사> 적정진료관리실장 외
8.31	경인일보	아주대병원	신종플루 검사 건보혜택 서민환란

방송

일시	매체	보도대상자	보도내용
8.02	KBS 연예나침춘	마취통증의학과 김찬 교수	노인성 신경통증 '대상포진'
8.03	EBS 부모	정신과 조신미 교수	한 마디만 워라 해도 대들어요
8.05	mbn 뉴스	소의영 병원장	의료비 보험청구, 원스톱으로 '불편 끝'
8.10	YTN TV 뉴스	호흡기내과 황성철 교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본격 진행
8.11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재활의학과 임신영 교수	재철이(뇌병변장애)가 사는 세상
8.13	YTN TV 뉴스	예방의학교실 교수팀	치매를 예방하려면
8.13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노령의 공포 치매! 예방이 중요함니다
8.15	환경 WOW TV 메디컬센터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	치매예방 생활수칙
8.25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유전질환전문센터 김현주 교수외	열세살 연호의 희망찾기
8.25	EBS 부모	정신과 조신미 교수	손녀 키우기가 더 힘들어요



# 재활전문병원, 연세세미래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자리잡은 연세세미래병원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연세의료원에서 재활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수료한 송남규 병원장이 140병상 규모로 2008년 11월 17일 개원한 재활전문병원이다.

연세세미래병원은 부족한 재활치료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하여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이다.

수원, 화성, 오산, 평택, 안양, 분당권을 포함하여, 각종 사고와 재해로 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재활의지를 부각시키고, 환자의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연세세미래병원은 재활전문치료사들로 구성된 운동치료팀, 작업치료팀, 근골격계 치료팀, 소아재활치료팀을 운영하여 뇌졸중환자, 외상성 뇌손상환자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장애가 있는 환자, 척수손상환자 및 신체 절단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전담하고 있으며, 각각의 팀별 교육 진행 및 환자평가를 수시로 시행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연구·토론하여 치료방법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에게 정확하고 세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BOBATH, PNF, 보이타 치료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발달치료(NDT) 교육을 이수한 전문재활치료사가 환자와 1:1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연세세미래병원의 모든 병실을 포함한 병원시설은 청정공기 흡배기 여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병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 음식 냄새 등을 신속히 제거하고 깨끗이 정화된 공기가 병원 전체 시설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활치료



특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자간병, 1:1 간병 공동간병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간병인 선택 등에 의한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여건까지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경우 간병인 지도제도 알선 및 지원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각 병동별로 간호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편안함과 신속한 간호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병동간호팀과 외래 간호

팀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중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재활환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연세세미래병원은 송남규 병원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환자를 위한 병원, 전문치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에 여러분의 동참을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으로 구성된 우리 아주대학교의료원은 1994년 문을 연 이래 15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내외 연구 실적, 학생들의 입학 성적, 의사 및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률, 우수한 병원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국내 최상위권 의료기관으로 성장하였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발전의 노력으로 지역사회가 자랑하는 의료원, 지역사회에 사랑을 받는 의료원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의료원 가족 여러분과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동문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은 더 큰 성장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통해 오늘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후원자 예우

후원금액	예우
1백만 원 이상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백만 원 이상	차량 출입증 발급(1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3년, 연 5백만 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1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3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5천만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10년, 연 5백만 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1회) 차량 출입증 발급(10년)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1억 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진료비 감면(평생, 연 5백만 원 한도) 종합건강진단 무료 쿠폰 증정(2매 평생) 차량 출입증 발급(평생) 건물 또는 실 명명 건물 벽면에 회원 성명 영구 보존

## 후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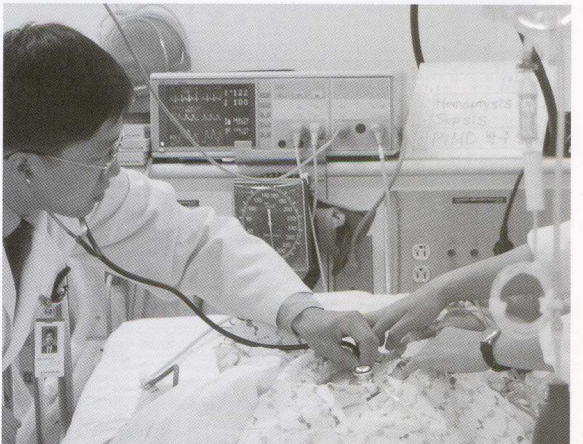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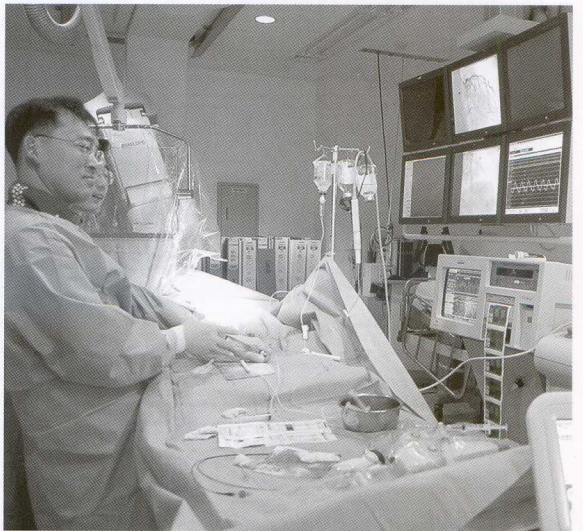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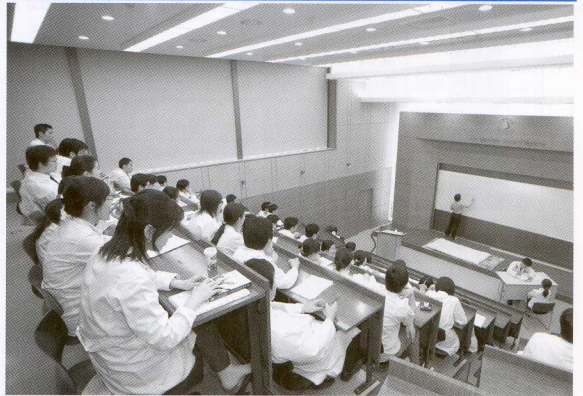
현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 형태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 제일은행 692-20-164295
  - 제일은행 692-20-166907
  - 국민은행 593501-01-082841
  - (예금주: 아주대의료원)
- 자동이체
  - 거래은행 신청 후 사무국에 전화로 통
- 안내전화
  - 발전기금 사무국 ☎ 031-219-4000

# 기다립니다

개원 20주년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모습은 「수 개 진료 분야의 최고 수준 도달,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립, 국내 3위 이내 의과대학으로의 진입」 등을 통해 고객 중심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주대학교의료원의 꿈은 많은 분의 땀과 노력, 성원이 밑거름이 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관심과 성원은 세계적 의학 수준의 발전과 건강 사회 구현이라는 의료원의 꿈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 의료원 발전기금 모금 현황

구분	건수	납입 총액	비고
월간	2건	578천 원	
누계	488명	5,336,069천 원	

### 월간 명세

성명	약정·납입액(원)	비고
김혜진	200,000	
교직원 분납분	378,000	

(가나다순)  
2009. 8. 22. ~ 2009. 9 21.

전문클리닉 진료시간표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위암센터 4181	조용관	5756	화	화, 수	위암, 위장 및 복부질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위암,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암, 위장·대장 질환, 기능성 질환	
	이기명	5963	월, 수	수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신성재	5963	수	월, 금	위암, 위장 질환, 대장 질환	
	강석윤	5884	월, 목	수	각종 암	
오영택	5884	월, 금	월, 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폐암센터 4730	황성철	5967	월, 화, 금	목	폐암, 폐결핵,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5967	화, 금	월, 수	폐암, 만성폐질환,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신승수	5968	수, 목	월, 화	폐암	
	박주현	4731	월, 목, 금	화	폐암, 간질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결핵	
	최호	5542	화	화, 목	폐암, 종격동질환, 다한증	
	이성수	5543	해외연수중		식도암, 흉벽기형, 일반종부외과	
유방암센터 4744	최진혁	5994	화, 수, 금		폐암, 두경부암, 식도암, 위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강석윤	5884	월, 목	화	각종 암	
	오영택	5884	월, 금	월, 금	종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정용식	4743	화, 목, 금		유방질환	
	김구상	4743	월, 수	월*, 화*, 수	유방질환, 유전성 유방암, *유전성유방암 상담	
	나국영	4743	화, 금		유방질환	
관절염센터 4310	전미선	4744	화		유방종양	
	강석윤	4744	화		유방종양 *은맘모술 시술만 시행	
	남동호	5902		화	류마티스 관절염, 무릎, 통풍	
	서창희	5818	해외연수중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무릎, 통풍	
	전창훈	5542	화		척추외과	
	원예연	5542	월		인공관절외과(술관절 및 고관절), 중증 관절염	
연골재생센터 5990	한경진	5543	수	월, 금	수부 및 상지외과	
	민병현	토			무릎관절 연골재생	
	윤승현	토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김효철	5992	수		혈우병	
	정성현	월			혈우병	
	김현주	5903	화, 목	수	각종 유전질환, 유전성 암질환	
유전질환전문센터 5979	고정민	5903	수, 금	월, 목	유전질환	

진료과명 진료시간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통증클리닉 5896	김찬	4331	화, 목	화, 목	삼차신경통, 다반통, 수족냉증, 대장포진후 신경통	
	한경림	4331	수, 금	월, 수, 금	경부·요추 디스크, 오십견, 두통, 교감신경위축증	
	김도원	4127	월, 수, 금		요부·경부 디스크, 오십견, 암성 통증	
	손영표	4127	월		요부·경부 디스크, 오십견, 암성 통증	
	김승호	4127	금		요부·경부 디스크, 오십견, 암성 통증	
	이재우	4127		수		
협수 및 발목클리닉 6088	일반진료	4332		월		*는 특수진료
	신윤미	6088	월, 금	화, 금	소아·청소년 정신과, 틱 장애, 자폐장애	
	조선미	5814	금, 토(격주)	수, 금	심리검사 프로그램	
김선영	6088	월	화	소아·청소년 정신과, 틱 장애, 자폐장애		

진료과명	전문클리닉명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비고
소화기내과	간암클리닉 5976	조성원	5969	월, 화, 목		
		정재연	5963	금	화, 목	
		왕희정	5753	금	화, 금	
	점막하종양클리닉 5976	김봉원			월, 금	
		원제환	5863	월, 화, 목	금	
		김진홍	5962	화, 목	수	
순환기내과	심부전 및 판막질환클리닉 5717	이기명	5963	월, 수	월	
		황재철	5902	목, 금	월	
감염내과	여행자 예방접종클리닉 4730	조용관	5756	화	화, 수	
		한상욱	5754	수, 금	월	
알레르기 류마티스 내과	별독(근총독) 알레르기클리닉 5902	신준한	5973		화	
		김동호	5902	화, 목	화, 금	
정신과	공황장애클리닉 5814	최영화	4730	해외연수중		
		임기영	5810	수		
외과	대장항문병클리닉 5758 진료접수 Hot Line 5200	서광욱	5756	월	월, 목	
		오승엽	5756	화, 목	월	
흉부외과	하지정맥류클리닉 5752	이광재	5963	화, 목	목	
		홍유선	5752	대우병원 파견	월, 화	
신경외과	뇌졸중 혈관내수술클리닉 5664	김선용	5858	수	월, 화, 목	
		임용철	5664	수		
성형외과	구순구개열클리닉 5614	윤수한	5664	화		
		박동하	5613	화	화, 금	
산부인과	안면윤곽 미용클리닉 5614	박명철	5611	수		
		박동하	5613	화	화, 금	
안과	피부종양클리닉 5614, 5917	박동하		화	화	
		김유찬		화	화	
재활의학과	불임 및 습관성 유산클리닉 5597	이일재		해외연수중		
		황경주	5643	월, 수, 금	화	
비뇨기과	콘택트렌즈클리닉 5673	김미란	5643	화, 목	화, 금	
		양홍석	5671	월, 금	화	
재활의학과	의안클리닉 5673	국경훈		화	목, 금	
		최중보	5587	수, 금	월	
가정외과	요실금클리닉 5585	김영수	5586	월	수, 금	
		김영수	5585	월	수, 금	
치과	오십견클리닉 5802	윤승현		월, 목, 토	화, 목	
		임신영	6440	화, 금	수, 목	
치과	사경클리닉 5802	김병택	5959	월, 수, 목	화	
		주남석	5959	화	월, 금	
치과	비만클리닉 5959	김병택	5959	화, 목	월, 금	
		주남석	5959	화	월, 금	
치과	금연클리닉 5959	이정근	5869	수	수	
		고석민	5869	금	금	
치과	인공치아 이식클리닉 5869	승승일	5869	월, 화	금	
		이인경	5869	화	금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김태완	5869	월, 수	금	
		오세광	5869	금	목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전성우	5869	목	목	
		송승일	5869	금	수	
치과	턱관절장애클리닉 5869	김태완	5869	수	수	
		김태완	5869	수	수	

셔틀버스 운행 노선

병원 현관 → 아주대학교 정문(글사랑 서점) → 우리은행 → 우만신성아파트(미소지움) → 삼성생명빌딩(동수원사거리) → 동수원병원 맞은 편(구 조흥은행) → 인계선경아파트(이화약국) → 삼부자갈비 → 법원사거리 (본 정형외과) → 아주대입구 삼거리(드림디포 문구점 앞) → 병원 현관

평일 오전 8:30-오후 4:30(운행간격 : 30분)

토요일 · 공휴일은 운행 안함

클릭! 아주대학교병원 홈페이지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www.ajoumc.or.kr

# 아주대학교병원 외래진료 시간표

(2009년 9월 1일 현재)

## 아주대학교병원은 토요일에도 특진 의사가 진료합니다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화기내과	조성원	5969	월, 화, 목		간질환		
	김진홍	5962	화, 목	수	위장관치료내시경, 헤·담도질환		
	이광재	5963	화, 금	목	위장·대장 질환, 기능성 질환		
	유병무	5962	해외연수중		헤·담도질환, 치료내시경		
	이기명	5963	월, 수	수	위장 질환, 대장질환		
	정재연	5969	금	화, 목	간질환		
	신성재		수	월, 금	위장, 대장질환		
	황재철		월, 목, 금		소화기질환		
	최정우			월	소화기 질환		
	전수진			화	소화기 질환		
	임선교			금	소화기 질환		
	강창준			월	소화기 질환		
	조영주			목	소화기 질환		
	강성한			화	소화기 질환		
	송재천		수		소화기 질환		
이명희			수	소화기 질환			
일반진료			금	소화기 질환			
순환기내과	탁승재	5973	화, 수	수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	
	신준환	5973	월, 목	화	관막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 고혈압		
	황교승	5974	화, 목	월	부정맥, 심전도생리검사, 전극도자절제술, 인공심박동기		
	윤영호	5975	금	월, 목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최소연	5974	해외연수중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최병주	5973	월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임홍식	5974	화, 수	금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혈관 중재술		
	양형도		금	화		★	
	박진선		수	목			
	일반진료						
호흡기내과	황성철	5967	월, 화, 수(외국인진료), 금	목	폐암, 폐결핵, 만성 폐질환, 천식, 만성기침		
	박광주	5968	화, 금	월, 수	만성 폐질환, 폐암, 폐결핵, 중환자 치료학		
	신승수	4731	수, 목	월, 화	폐암		
	박주현	4731	월, 목, 금	화, 수(외국인진료)	간질성 폐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폐결핵		
	이규성	5968	화, 수	목, 금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정우영	5967	화, 수	수, 금	호흡기질환, 중환자 치료학		
	일반진료						
근골격내과	최영화	4731	해외연수중		원인모르는 열, 감염질환, 에이즈, 성인예방접종		
	임승관		월, 목	수	감염질환		
내분비내과	이광우	5966	화, 수, 목	수	당뇨병, 내분비대사질환		
	정운석	5961	월, 화, 목	금	골다공증, 뇌하수체질환		
	김대중	5965	해외연수중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갑상선질환		
	권해진		수, 금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김승진		수, 목	월, 금	뇌하수체질환, 갑상선, 당뇨병		
	김태호		월, 금	화, 수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진료			화	내분비대사질환(췌장인진료)			
신장내과	김홍수	4741	월, 화(외국인진료), 수, 금		만성신부전증,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신규태	5971	화, 목, 금(외국인진료)	수	신장이식, 고혈압, 사구체신염		
	박인회		월	화, 목	신장질환		
	유수경			월, 금	신장질환		
응급내과	김효철	5992	수	수	혈액질환(백혈병, 폐암, 백혈구감소, 원형혈구, 이상혈구수용, 골수이식수용 등)		
	최진희	5994	화, 수, 금		두경부암, 식도암, 폐암, 위암, 유방암, 각종 고형암		
	박준성	5992	월, 목	수	혈액질환, 골수이식, 면역치료, 백혈병		
	김석운		월, 목	화	위암, 대장암, 직장암, 간담도암, 유종, 유방암, 각종 암		
	이현우		화, 금	목, 금	혈액질환, 백혈병, 각종암		
	정성현		수	월, 수, 목	각종 암 및 혈액질환	★	
	일반진료			월, 화, 금	각종 암 및 혈액질환	★	
	비뇨기내과	박해심	5905	월, 수, 금	수	천식·아토피·민감성천식·포항알레르기질환·아토피질환	
		김동호	5905	화, 목	화, 금	아토피 및 알레르기질환, 천식, 류마티스질환	
		서창희	5818	해외연수중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골관절염, 루푸스 등	
예영민			토(2, 4, 5주)	월, 목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질환, 두드러기		
김현아			월, 화, 수, 금, 토(1, 3주)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및 류마티스질환, 통풍		
최길순				화, 금	천식 및 알레르기질환, 아토피 질환, 두드러기		
성준모			목	목	류마티스 질환, 통풍 *는 관절염센터진료		
내과일반		5970	월 ~ 금	월 ~ 금			

진료과명	의사명	진료일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소아청소년과	홍정호	5620	월, 금	화, 수	청소년 질환, 성장과 발달	★
	김성환	5616	화, 목	수, 금	신경계 질환	
	배기수	5623	월	목	신요로 질환, 야뇨증	
	이수영	5620	화, 수	목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박문성	5617	월, 수	목, 금	미숙아, 신생아 질환	
	정조원	5621	목, 금	월	심장질환	
	황진순	5622	목	목, 금, 토	소아내분비질환, 성장클리닉, 대사질환	
	박준은	5617	화, 목	목, 금	소아혈액·종양질환, 조혈모세포이식	
	정다운		월, 금	화, 목	신경계 질환, 소아일반질환	
	유재은		분만휴가중		미숙아, 신생아·중환아, 소아일반질환	
	정현주		해외연수중		소아종양, 혈액질환, 소아일반질환	★
	장주영		월, 수	목, 금	일반질환, 소화기·영양질환	
	박지민		화, 수, 목	금	일반질환, 신요로질환, 야뇨증	
	김신미		금		일반질환, 내분비질환, 성장클리닉	
	김은진			금	일반질환, 천식, 알레르기질환	
일반진료			월, 화		★	
신경과	허균	5659	월, 목	화	간질, 뇌혈관질환	
	주인수	5653	화, 금	월, 목	척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김병국	5657	목	월, 목	뇌혈관질환	
	홍지만		월, 수	화, 수	뇌졸중(중풍)	
	문소영	5653	화(치매클리닉), 수	수, 목(치매클리닉)	치매, 인지, 행동장애/어지럼증	
	이진수	5653	월, 금	금	뇌경색, 뇌혈관질환	★
	윤성우		화, 금	월, 금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이상운동질환	
	이승현		화, 수	화, 수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통, 어지럼증	
	일반진료	5657	수	월, 목, 금	뇌혈관질환	
	정신과	정영기	5811	월, 수, 목	화	우울증, 불안증, 스트레스 관련 장애
임기영		5810	수	월, 목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 장애	
노재성		5811	화, 목	월, 금	우울증, 조울증 및 신경성 신체장애	
신윤미		5812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진료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틱, 자폐장애	
홍창형			화, 금*	수, 목	치매, 인지장애, 노인성 우울증, *는 기억력장애센터진료	
고상현			월, 목		스트레스 관련 장애, 정신신체장애, 정신종양학	
김신영			학습 및 발달장애, 클리닉 진료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 틱, 자폐장애	
김현정			화, 금*		노인 정신의학, *는 기억력장애센터진료	
일반진료			월, 수	월 ~ 금		
피부과		이은소	5913	월, 화, 목	목(예약), 수	피부병, 건선, 여드름, 일반 피부질환 (화·레이저치료)
	김유찬	5914	화	월, 화, 목(예약), 금	피부종양, 피부박피술 (목·레이저치료)	
	강희영	5914	월, 수, 목, 금	목(예약)	백반증, 피부색소질환, 일반피부질환	
	김은형	5913	수	월, 목(예약)	일반피부질환 (금·레이저치료)	★
	장웅현	5914	금	목(예약), 목	일반피부질환 (월·레이저치료)	★
	레이저진료			월, 화, 수, 목	예약에 의함	
일반진료	5915	월 ~ 금	월 ~ 금			
외과	김영욱	5761	월, 수		난치성 소화기(위, 담도, 췌장)질환	
	조용관	5756	화	화, 수	위장 및 복부질환	
	소의영	5756	수		갑상선·내분비 질환, 두경부 질환	
	홍정	5754	화, 목		소아외과 질환(기형, 흉양, 탈장, 배변기능장애)	
	원희정	5753	금, 토(간이식 후 진료)	화, 금	간이식, 간암, 간내결석, 담도	
	서광욱	5756	월, 목	월,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오창권	5756	월, 금, 토 ~ 토	월, 금, 토 ~ 토	장기이식외과, 혈관외과(혈관) 1000~5000토(000~1200원)등(연식)	
	김옥환	5756	화, 목		간·담도·췌장 질환	
	함상욱	5754	수, 금	월	위·십이지장 질환, 복강경위수술	
	정용식	4743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국중	5753	금		외상외과	
	김봉완	5753	토(간이식 후 진료)	월, 금	전이성 간암, 간내결석, 간이식, 담도	
	이찬디		월, 금, 토	수	내분비외과, 내시경수술, 두경부 질환	
	오승엽		월, 화, 목		대장·직장질환, 양성항문질환	
	김구상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이상림			수	위십이지장 질환, 급성복통		
백남현			목	간·담도·췌장질환·급성복통		
백은주			목	대장·직장·항문 질환, 급성복통		
이재명		목		간·담도·췌장 질환, 급성복통		
니국영		유방클리닉 진료		유방질환		
배병구		화		간종양, 간이식, 급성복통		
김라미		금		갑상선, 내분비질환, 두경부질환, 급성복통		
일반진료		토 ~ 토	토 ~ 토	혈관외과(10시~15시 린드샵 서비스)		

외래진료 접수 시간 \* 평 일 오전 8:00~오후 4:00  
\* 토요일 오전 8:00~오전 11:30

아주대학교병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 대표전화 : 1688-6114
- FAX : (031) 216-6656
- 전화예약 : (031) 219-5451
- 고객센터 : (031) 219-4242

- 종합안내센터 : (031) 219-5500~1
- 외국인안내 : (031) 219-4312
- 응급의료센터 : (031) 219-7700
- 건강증진센터 : (031) 219-5555

진료과목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홍부외과 5717 5752	이철주		대우병원 파견		상인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유선		목	월, 화		
	임상현	5750	수	수, 목, 금	상인심장외과, 대동맥질환, 소아심장외과, 혈관외과,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최호	5750	화	화, 목	관상동맥질환, 관막질환, 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이성수	5750	해외연수중		척도암, 흉벽기형, 일반흉부외과, 다관종, 폐암, 종격동질환	
최진욱			수, 금	폐, 일반흉부질환		
정형외과 5545	민병현	5543	화		무릎, 어깨관절, 골관절염, 스포츠외상	
	전창훈	5542	화*, 목,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윤예연	5542	월*, 수	수	인공관절외과(슬관절 및 고관절), 중증 관절염	
	한경진	5543	수	월, 금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조재호	5542	목	월, 화	소아정형(변형교정, 기 능리는 수술), 외상	
	한승환	5542	금	수, 목	척추, 측만질환, 당뇨병성 척추질환	
	이두형		해외연수중		골 연부조직 중앙, 외상	
	정남수		목	화, 목, 금	척추외과, 일반정형외과	
	박진		월, 수, 금	목	일반정형외과	
	손성호		월	수	수부 및 상지외과, 미세수술외과, 사지 혈관신경외과	
이진열			화, 금	척추외과, 측만증, 최소침습수술	*는 특수진료	
일반진료						
신경외과 5664	조경기	5661	월, 목	목	뇌종양, 척추질환	
	조기홍	5662	수	수	척추질환, 신경통증치료	
	윤수환	5662	화, 금	화	소아신경외과	
	안영환	5662	수, 금	월	뇌경위기능, 동통외과, 방사선수술, 뇌종양	
	김세희	5663	화, 수, 금		뇌종양, 외상	
	김상현		월, 목	금	척추질환, 외상	
	미용철		월, 화, 목		뇌혈관질환, 뇌졸중, 중재적치료	
	강성원			화,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
	조준범			월, 목	척추질환, 척추외상	★
	이진수					
성형외과 5614	박명철	5611	월(초진), 수, 금		유방성형, 소아기형, 미용성형	
	배동하	5612	화	화, 금	두개안면기형, 안면부 외상, 피부종양, 고성형	
	배남석		목	월, 수	두경부 재건, 하지 재건, 액취종, 피부종양	
	이일재		월	목	눈성형, 피부종양, 미용성형	★
	이훈섭		해외연수중		미용성형	★
일반진료		월-금	월-금			
산부인과 5597	유희석	5595	월, 목		부인암	
	김행수	5593	수, 목	월	고위험산모, 초음파	
	장기홍	5594	화, 금	월, 수	부인암, 복강경	
	양정인	5593	월, 금	수, 목	고위험산모, 초음파 (특수진료:에어에 한함)	
	황경주	5643	월, 수, 금	화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자궁내막증	
	이정필	5595	대우병원 파견		부인암, 비뇨부인과, 복강경	
	김미란	5643	화, 목	월, 금	불임, 복강경(자궁근종, 난소종양), 미혼여성	
	장석준	5594	수	화, 목, 금	부인암, 복강경, 요실금	
	김우영		월, 화, 금	수	부인종양	
	유승철			월, 금	부인과	
김용미		금	화	산과, 초음파	★	
안과 5673	유호민	5669	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안재홍	5672	화, 목(에야), 금	월	녹내장, 백내장 (목:레이저치료)	
	장윤희		해외연수중		사시, 소아안과	
	양홍석		월, 금	화	각막, 백내장, 외안부, 렌즈클리닉	
	국경훈		화	목, 금	안성형, 의안클리닉	
	김준범		목	화, 목, 금	망막, 초자체, 백내장 (수:우:레이저치료)	
	송지훈		수, 목	월, 수	망막, 초자체, 백내장 (수:우:레이저치료)	
	정유리			화	망막, 초자체, 백내장	
	일반진료	5671	월-금	월-금		
	박기현	5742	월		진주종성 중이염	
정연준	5742	화(난청클리닉), 목	월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귀종양, 인공와우		
김철호	5746	해외연수중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질환		
김현준	5746	화, 금	수	비염, 부비동염, 후각장애		
박현이		수	목, 금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보청기, 인공와우		
이진석		월	목	두경부 종양, 음성장애, 기관식도질환		
이중빈		수, 목	월, 화, 목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홍성표		금	화, 수, 금	비염, 부비동염		
모정윤		월, 화, 목		난청, 중이염, 어지럼증		
일반진료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진료과목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세부진공	비고
비뇨기과 5585	김영수	5586	월	수, 금	소아비뇨, 여성 방광염	
	김세중	5587	월, 화	목	비뇨기 종양(암)	
	안현수	5588	목, 금	화	요로결석, 불임	
	최중보	5587	수, 금	월	남성과학(성기능장애), 배뇨장애, 요실금	
	최신일	5588	화	월, 목	비뇨기 종양(암)	
	이수현	5588	목	화	비뇨기 종양(암), 배뇨장애	
	원용영	5588	월, 수		소아비뇨, 요실금, 요로결석	
	일반진료			수, 금		
	이일영	5795	월, 수, 금		척추손상	
	나은우	5796	수, 목	월, 금	뇌졸중, 뇌손상, 절단자 재활	
임신영		화, 금	수, 목	소아재활, 학습장애, 언어발달장애, 시경		
윤승현		월, 목	화, 목	노인재활, 근골격계 재활, 스포츠손상재활		
일반진료			월, 금			
영상의학 5823	김진홍	5854	월, 수, 금	월, 수, 금	뇌혈관질환 중재적 치료	
	원재현	5858	월, 화, 목	금	혈액부식환자 중재적 치료, 하지정맥 혈전증 치료	
	배재희	5859	수, 금	월, 화, 수	갑상선 종양 고부과 치료, 폐색전증의 혈관내 치료	
	일반진료	5858	수, 금	화, 목		
	전미선	5884	월, 목, 금*	월, 화	종 양(두경부, 유방암, 소화기암), *보라대내요법	
	오영택	5884	화	화, 목	종 양(두경부, 폐종양, 비뇨기암)	
	강승희	5884	월, 화, 목	월	종 양(뇌종양, 유종, 소화기암)	
	일반진료	5884	수, 금	수, 금		
	윤준기	5947	목	목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안영실	5948	수	수	핵의학(진단, 동위원소치료)	
산부인과 5644	이경중	5645		화, 금	직업성 질환,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박재범	5295		월, 목	직업성 질환	
	민경복	5295		수	직업성 질환, 환경성 질환	
	일반진료	5644		월-금	직업성 질환	
	이득주	5957	월, 화, 금	목	노화, 류마티스, 갱년기	★
	김광민	5957	월, 수, 금	화	남성갱년기, 피로, 노화관리	
	박성별	5957	해외연수중		가족상담, 여성갱년기, 스트레스	
	김범택	5958	월, 수, 목	화	비만, 골다공증	
	주남석		화, 목	월, 금	비만, 금연클리닉, 건강증진	
	최승화		화, 금	목	대체의학, 골다공증	
김규남		목	월	노화관리, 건강증진	★	
김보영		수	수, 금	만성피로, 건강증진	★	
일반진료			월-금	일반진료	★	
치과 5869	백광우	5869	화, 수*, 목*	화*, 수, 금	전정법치료, 치아우식증치료, 항재우치료, 소아치과	
	이정근	5869	월, 수	월*, 수*, 목*	턱관절(주걱턱), 임플란트, 악안면기형, 외상	
	고석민	5869	화, 금*	월, 화*, 수, 금*	임플란트, 심미보철	
	송승일	5869	화*, 금	월*, 화, 목*	턱관절 장애, 임플란트	
	신혜진	5869	월*, 수*, 목, 금	월*, 금	근관치료, 치아미백, 신경치료	
	김수연	5869	월, 화*, 목*, 금*	화*, 목	소아보존, 보철, 예방교정, 소아외상, 장애인치과	
	홍소연	5869	월*, 수, 목, 금*	수*, 금*	치아 교정	★
	이인경	5869	월, 화*, 수, 목*	화*, 목	잇몸염증, 치주수술, 치은성형, 임플란트	
	김태원	5869	월*, 화, 수*, 목*	수, 목, 금	임플란트, 치과통합진료	★
	오세광	5869	금		임플란트, 치과통합진료	
진성우	5869	목	목	임플란트, 치과통합진료		
일반진료	5869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오후만 초진가능		

진료과목	의사명	진료시간	오전	오후	야간	세부진공	비고
응급 의학과 7777	조준필		경기도의료원 파견			외상외과, 응급질환	
	정윤석	7766	월, 수		수	소생의학,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이국중	7766	금	월, 수		외상외과, 외과계 응급질환	
	민영기	7766	화	수	목	중환자치과, 중독학	
	김기운	7766	목	화, 목	화	임상독성학, 응급질환, 소생의학	
	안정환	7766	금	월, 목	월	응급질환, 소생의학	
	최상천	7766	월	수, 금	수	응급질환, 중환자치과	
	조영신	7766		월, 화, 금	금	응급의학	

▲ 응급의학과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순번대로 진료합니다.

**토요일 특진 운영 안내**  
토요일에도 특진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료합니다.

1.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는 특수진료입니다.
3. \*는 세부진공만 진료합니다.
4. ■은 추가비용징수 선택진료의사입니다.
5. ★는 진료시간이 변경된 의사입니다.
6. 전화문의는 031+219+해당 진료과의 번호를 누르십시오.